

GLOBAL 외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식지
2014 WINTER
Vol. 86

GLOBAL 외대
2014 WINTER Vol. 86



Come to
Meet the HUFs
World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캠퍼스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QS 2014 세계대학평가
현대언어학
세계 29위

한국외대를 답았다!

셀러리멘으로 시작, 힐라코리아 지사장, 그리고 힐라 그룹에 이어 아쿠쉬네트 컴퍼니까지 인수한 회장으로 현장 경험 및 현지 임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세계 현장을 누비며 다닌 결과 한국과 뉴욕을 600여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 800만 마일리지의 소유자 - 발상의 전환으로 창조적 경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성공 신화, 한국의 거상 **윤윤수 회장**

하나의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글로벌 시각과 창조적 사고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한국외대

**윤윤수 회장은 국제화 1위 대학을 넘어
융합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외대를 답았다.**

LD (Language&Diplomacy) 학부 2014학년도 신설

LT (Language&Trade) 학부 2015학년도 신설

※ LT학부/LD학부 동일한 장학 및 특전 제공 (홈페이지 참조)

힐라코리아 및 아쿠쉬네트컴퍼니
회장 **윤윤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4. 12. 19(금) ~ 12. 23(화)
<http://www.hufs.ac.kr>

※ 2010년 4월 FILA 브랜드 권고장인 이탈리아 비엘라(Biella)시(시장 도나토 젤타일 (Donato Gentile)) 명예시민으로 위촉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nt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0th Anniversary

Special Theme

한국외국어대학교 UI 개선 및 정립

- 02 총장 인사말
- 04 한국외국어대학교 UI 개선 및 정립
- 10 HUF Hot Issue
조명덕 여사 명예 법학박사 학위수여식
권순한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소이상사 대표이사) 장학금 3억 원 기탁
제12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금상 수상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 14 자랑스러운 외대인
2014 외대 언론인상 수상자
- 이병로 연합뉴스 편집국장(노어과 79)
- 유권하 코리아중앙데일리 편집인(독일어교육과 80)
- 상수종 YTN 보도국장(인도어과 82)
맹주의 공자아카데미 원장(중국학부 교수)
황성돈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조직위원회 위원장(행정학과 교수)
- 22 HUF 연구소 탐방
아프리카학의 한국적 패러다임 구축 그 중심에 서 있는 아프리카연구소
- 24 융복합 리더 HUF
한국외대 신설학과 소개

Trend & Culture

- 28 동문작가와의 만남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SK건설, 법학과 91)
- 30 Art & Culture
교수컬럼 : '사회적 텍스트'로서의 미생

HUF News & Donation

- 33 HUF 주요단신 뉴스
- 38 HUF 학술 뉴스
- 40 HUF 교류협정 뉴스
- 41 HUF 교수동정 뉴스
- 42 지식출판원 신간안내
- 43 사이버한국외대 뉴스
- 44 사업지원처 뉴스
- 46 HUF 동문동정 뉴스
- 48 HUF 발전기금 뉴스
- 49 HUF 발전기금 거울호 약정자 명단
- 50 HUF 발전기금 전체 약정자 명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식지

2014. WINTER Vol.86

발행일 2015. 1. 8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이유나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2. 2173. 2093

제작대행 (주)꽃피는청춘

사랑하는 한국외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동장군과 함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지만 지난 일 년을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여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4년은 한국외대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은 12만여 동문들을 배출하여 한국의 민주화와 근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심화된 전공능력을 바탕으로 타자와 타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상호호혜의 마인드로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천 능력을 겸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섭과 융합에 기반한 창의융복합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전통적 기반인 어문학과 지역학을 기저로 하면서 인문, 사회, 상경, 이공 계열을 아우르는 융복합학의 산실로 거듭나는 것이 '100년 한국외대'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외대 가족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우고 발전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시작한 이후 최근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기상청 차세대 도시 농림융합 기상사업단'유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5년간 722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에 연구 및 대기관측 시설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캠퍼스에는 국내 최고수준의 대기오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공계 특화발전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차세대 연구를 위한 창의융합연구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중남미 녹색융합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상청 차세대 도시 농림융합 기상사업단'은 우리 학교가 미래비전으로 설정한 창의융복합 교육 및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12월 8일에는 한국 최고의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외대 60년 외국어 교육의 결정체인 다국어 사전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는 한국전력의 전략목표지역(Target Market) 언어와 지역학에 능통한 해외사업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금융감독원과는 다문화가정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외대 가족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한국외대'를 도모하는 일은 우리 학교 법인, 교수·학생·직원, 그리고 12만 동문을 아우르는 인식의 공유와 화합의 장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외대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 헌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귀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1954년 설립 이후 부단한 도전과 창조를 통해 한국 제1의 글로벌대학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처럼 더 나은 한국외대를 위한 우리의 걸음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나 큰 단체에게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인은 적절한 목표 설정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2014년에도 우리 학교 교수님, 직원분, 동문님들 모두 힘껏 노력하였고, 재학생들은 누구보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힘을 기울인 노력들이 꼭 좋은 결실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외대 모든 가족분들이 그 어떤 추위와 시련도 너그러이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올미년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과 외대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문안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 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한국외대의 새로워진 얼굴,

품격 있는 이미지를 담다

60주년을 맞이하여 UI 개선 및 정립

개교 60주년을 맞아 연초에 시작된 UI(University Identity) 정비 프로그램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외대의 품격과 매력을 담아내기 위한 이번 UI 프로그램은 개교50주년에 개정된 UI를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한결 세련되어진 모습이다. 날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UI의 필요성을 말하고 이번에 진행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외대체 Light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ABCDEFGHIJKLMNOPQ

한국외대체 Medium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ABCDEFGHIJKLMNO

한국외대체 Bold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ABCDEFGHIJKLMN



상징과 서체, 컬러로 표현되는 한국외대 UI

▲UI컬러를 확장하고 ▲학교의 대표 상징을 선정하고 ▲전용서체를 개발해 배포한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UI(University Identity) 정립 사업의 주요내용 세 가지이다. 모두 우리학교를 대표할 시각적 이미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견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삼 확정하고 변용하는데 어떤 실익이 있다는 것인가. 학교의 건물을 증·개축하고 학생들을 위한 연구·교육 환경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학교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투자는 그 중요도가 한참이나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서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라 불리는 아이덴티티 소구의 실제적 효과를 인정한다면, 나아가 UI(University Identity)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기업경영 기법을 받아들여지게 된 오늘날의 대학 환경을 이해한다면, UI사업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좋은 이미지가 곧 대학의 경쟁력이다

CI는 사실 기업경영 기법 중 하나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이념, 목표, 행동, 표현 등의 일관성을 높여 내부적으로는 구성원의 의식을 개혁하고 밖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명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CI를 넘어 BI로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그 실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오늘날 CI 또는 BI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기업이 없음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 소구 계획에서는 기업 로고나 상징 마크 등 시각적 이미지의 소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학에도 예로부터 상징물이나 로고, 심벌 등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러 대학에서 CI를 벤치마킹한 UI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기업에서와 같은 시장의 원칙이 국내 대학시장에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 10여 년 사이의 현상으로 여겨진다. 바야흐로 대학자율 경쟁체제의 시대에 돌입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는 대학의 생존전략이라는 과제와 연관되어 있다. 대학입학정원에 비해 대학입학이 가능한 18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대학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다. 우리대학을 비롯하여 국내 우수 대학들은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점차 중요해졌다.

UI는 CI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념, 철학 등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통합적으로 UI에 반영함으로써 대학 고유의 정체성(identity)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우선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이 높아진다. 밖으로는 예비 입학생들과 관련 집단에게 해당 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UI확립을 위한 사업들이 단번에 대학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오랜 안목을 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임에 분명한 것이다.



한국외대 캐릭터마크 선정 사업 진행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대학은 UI 정립 및 통합적 이미지 구축의 일환으로서, 한국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마크 선정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동안에는 비둘기, 부엉이, 미네르바 여신 등이 우리대학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고루 사용되어 왔다. '비둘기'는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인 '진리, 평화, 창조'중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 어울리고 화합하는 외대인의 모습을 표현해 왔다. '부엉이'는 로마신화 중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신조(神鳥)로 묘사되는 동물이다. 우리대학 내에서는 (구)미네르바 동산의 새로서 회자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미네르바 여신'은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며, 지혜와 기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어 왔다. (구)미네르바 동산의 이름으로 우리대학에는 더욱 친숙하다. 의식과 지식을 주도하는 외대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대학은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혼용되어 온 상황에서 하나의 대표상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비둘기, 부엉이, 미네르바 여신을 후보군으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e-mail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3,044개의 전체 응답에서 ▲부엉이(1,216개, 40.0%) ▲미네르바 여신(1,114개, 36.6%) ▲비둘기(468개, 15.4%) ▲기타 제안(246개, 8.1%) 순으로 선호도 조사의 결과가 마감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상징은 향후 캐릭터 작업을 거쳐 신규 제작될 UI규정집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각종 기념품 및 교내외 UI 상징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며 외대인의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로서 뚜렷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외대체 Light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
ABCDEFGHIJKLMNOPQRSTUVWXYZ

한국외대체 Medium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
ABCDEFGHIJKLMNOPQRSTUVWXYZ

한국외대체 Bold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
ABCDEFGHIJKLMNOPQRSTUVWXYZ

또 하나의 브랜드 자산, 독자적인 전용서체 확보

한국외대 전용서체 개발은 서체 저작권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12년, 2013년에 걸쳐 폰트 제작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이미지(UI), 인쇄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각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글씨체 사용권을 일괄구매하기 시작했다.

우리대학은 이미 개교5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용서체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에는 연루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개발한 전용서체는 이미지(ai) 파일의 형태여서 변용이 불가능하고 한글 280자 정도만 개발되어 있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로부터 1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기존 명칭들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집 내 280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 필요한 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개교60주년을 맞아 UI를 정비하기로 한 우리대학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식의 전용서체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고려대, 서울시립대, 단국대, 국민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순천향대 등 주요대학들이 각 대학 고유의 전용서체를 개발하여 고유브랜드로 활용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외대 전용서체는 3종류(bold, medium, light)로서, 한글 2,350자, 영문 94자, 약물 986자를 포괄한다. 현재 서체 개발은 마무리되었고 테스트 단계에 있다. 향후 사용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구성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2015학년도부터는 전체 구성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대전용서체는 인쇄매체(광고, 홍보물, 포스터, 신문 등), 온라인매체 활용(홈페이지, e-book, 블로그 등), 영상매체(홍보영상, UCC), 사인시스템(간판, 유도판 등)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우리학교 브랜드 고급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서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해 직·간접적 홍보매체로 활용될 예정이다.

UI 컬러 확장으로 보다 세련된 대학 이미지 창출

UI 프로그램 요소 중 특히 시각적 요소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학 이미지를 좌우한다. 일차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색깔은 더욱 즉각적인 인상을 만들어낸다.

우리대학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기본 UI컬러(pantone 315cvc) 외에 확장 UI컬러(pantone 7463c)를 추가적으로 개발했다. 새로운 UI컬러는 우리대학의 이념 및 대학 실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색으로, 특히 그 세련됨에 있어서 높이 평가받았다.

이 새로운 확장 UI컬러는 교내외 현수막, 명함, 새로미 의전복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대내외적으로 우리대학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UI, 우리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

개교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실행한 UI 프로그램은 개교50주년에 개정된 UI 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오늘날 학생들의 선호도와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UI 정비 및 확장은 우리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한 여러 홍보활동에 긍정적 요소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Mini interview

시대에 맞게 한국외대의 이미지를 리뉴얼



이유나 홍보실장

이유나 홍보실장은 본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다. 김인철 총장 취임과 함께 올해 2월부터 홍보실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번 UI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관련 구성원들을 설득한 것은 홍보실장으로서의 첫 해 주요업무 중 하나였다.

“전면 개정이라기 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작업의 동기와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년 전 개정되었던 외대 UI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장되고 있어 이를 발전적으로 재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외대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세계 제1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UI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외대가 지닌 품격과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UI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전공이 마침 이쪽이다 보니 학술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며 웃었다. “실제로 기업 커뮤니케이션 연구결과들을 보면 시각 이미지 요소들이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미지가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증명된 바 있구요.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희의 잠재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시각적 자극에 더욱 민감한 세대입니다. 학생들의 대학이미지 형성에 있어 UI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대학도 그런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도 하셨고요.”

지난 2월에 시작된 UI 정비작업들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실장은 2015년 과제는 업그레이드된 UI를 학내외에 제대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새롭게 재정된 것들에 대한 프로모션 마케팅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앞으로의 목표를 다졌다. 또한 그는 새로운 UI에 대한 학내외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한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나눔으로 법조인을 양성한
가난한 법학도들의 어머니

조명덕 여사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수여

조명덕 여사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이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최됐다.

우리대학은 추천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오신 조명덕 여사의 공로를 기리는 뜻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조명덕 여사는 지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대학 법학과 여러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이로 인해 꿈을 키우는 어려운 형편의 법학도들의 어머니로 불려져 왔다. 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인 기탁을 통해 한국외대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날 수여식에는 교내외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약 2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모교사랑의 마음이
12만 동문에게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권순한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소이사사 대표이사) 장학금 3억 원 기탁

2015년 1월 2일(금), 오전 10시에 대학본부 203호 회의실에서 권순한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소이사사 대표이사)의 장학금 3억 원 기탁식이 진행 되었다. 권순한 회장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총 8억 2천여만 원의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부하였으며 이번 장학금까지 총 11억 2천여만 원을 기부하게 되었다.

권순한 회장은 기탁식에서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총장님의 노력과 학교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심하다가 이번 장학금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만, 이런 모교 사랑의 마음이 12만 동문에게 확산되어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학교발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역량이 닿는 데 까지 총동문회가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장학금 기탁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김인철 총장은 “권순한 총동문회장은 이미 많은 금액의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쾌척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숭선수범은 학교에 큰 격려가 된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학교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장학금 쾌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성태 총동문회 사무총장, 이성하 총동문회 사무국장, 최충희 부총장, 이성하 대외부총장, 문명재 교무처장(서울), 김시홍 학생복지처장(서울), 김유경 국제교류·대외협력처장, 김성수 기획조정처장, 이재원 교무처장(글로벌), 이유나 홍보실장, 박정운 영어대학 교수 등 총동문회 및 많은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우리 대학 Printk 팀,
제12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금상 수상

지난 12월 3일 열린 제12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시상식에 우리 대학 Printk 팀(팀장 하현수)이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인이 참여하는 일반분야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4월부터, 총 8개월에 걸쳐 경진대회를 준비해 온 Printk 팀은 1,000만 원의 상금과 기술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본 경진대회의 주요 수상자에게는 GE코리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총 18개의 후원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해당 업체에 입사 지원 시에는 가산점도 부여된다. 더불어 단기 해외연수,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대회 참가비용이 지원되며 지난 11월 오픈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에 입소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창업을 실현할 수 있다.

2003년부터 개최해온 본 대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 우수 인력을 양성해온 국내 유일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다. 또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산업 간의 협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왔다. 2014년부터는 참가자의 국적 제한을 철폐하여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 등 해외 팀을 포함, 최종 265개 팀 850명이 참가하였다.



외국어와 외국학의 미래 전망에 관한 성찰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60 Years of Foreign Studies, Pro Centesimus Annus'를 주제로 11월 7일(금),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최되었다.

김시홍 EU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인철 총장의 환영사,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의 축사 그리고 박재창 LD학부 석좌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교내 8개 연구소 및 사업단이 연합으로 준비한 이날 행사에서 중국, 인도, 스페인, 멕시코, 미국, 프랑스 등지의 저명 학자들을 포함한 3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교 이후 지난 60년간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외대 동문들이 외교와 통상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돌아보면서 장차 다가올 2054년 백주년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약 150명의 학자 및 학생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를 통해 외국어와 외국학의 미래전망을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4 외대언론인상



그 영광의 수상자를 만나다

한국외대총동문회는 외대언론인회와 공동으로 1999년부터 '외대언론인상'을 제정하여 매해 시상하고 있다. 올바른 언론의 위상확립과 참된 역사의 기록을 위해 노력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외대언론인의 밤 및 외대언론인상 시상식'행사는 1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권순한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하여 외대언론인회 회장이기도 한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로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유권하 코리아중앙데일리 편집인, 상수종 YTN 보도국장에게 올해의 '외대언론인상'이 수여되었다.

이병로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노어과 79)

이 병 로

공정하게 판단하라 기자는 내게 숙명 같은 것

이병로 동문은 1986년 연합뉴스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이후, 1994년부터 3년간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활약했고 2004년부터 국제뉴스부장, 사회부장, 편집부국장,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논설위원 논설실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는 편집총국장을 맡아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병로 동문은 외대언론인상 수상 소식을 듣고 30년 정도의 언론인 생활을 돌이켜 봤다고 했다.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부족한 때가 많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했고 '언론인으로 있는 동안 더욱 잘해서 선후배 동문들에게 누가 되지는 말아야겠구나'하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고 한다. 기자로 살아오면서 그는 '공정하게 판단하자'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왔다. 그 역시 어느 사람들처럼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편견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항상 반대 입장을 상정하고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올려놓는 방법을 빼놓지 않으려 했다. 적어도 그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된 것은 아마도 그가 오랜 기간 그런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연합뉴스에는 편집총국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직함이고 편집국장이 겸임입니다. 미국 등지에는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많이 있지만 아직 국내 언론에는 생소한 제도입니다. 편집권을 경영측면의 영향에서 독립시키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사이기 때문에 이념적, 정파적 대립 속에서 가장 공정한 자세를 취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로서의 원칙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모스크바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던 시절 홀로 특종 기사를 썼을 때였다. 보람을 느낀 만큼이나 한동안 동료 특파원들과는 불편하게 지내야 했다. "특파원들 누구나 주시하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미안한 감정도 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이국 땅에서 한동안 어색했던 상황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기자의 숙명 같은 것이죠." 이병로 동문은 후배들에게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준비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노력하는 과정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고되지만 그만큼 보상이 따를 것"이라며 때가 왔을 때 멋지게 능력을 발휘할 후배들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권하 코리아중앙데일리 편집인
(독일어교육과 80)

유권하

유권하 동문은 언론과 연을 맺은 것이 우연이라고 했다. 그는 외대 재학시절 어렵듯하게나마 장래 글로벌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던 차에 독일 아테나워 장학재단에 선발돼 독일로 유학을 갔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잠시 귀국해 은사님들을 뵈러 학교에 들렀을 때 그야말로 우연인지 마침 연구실에 펼쳐져 있던 중앙일보에서 전문직 기자 선발 공고를 보게 되었던다. 그는 호기심에 응시를 했고, 운명은 바뀌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일하는 환경이 다이내믹한 기자란 직업이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다”고 하니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천운이었나 보다. “일을 맡을 때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각오를 다지려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선승이던 임제선사(臨濟禪師)가 주신 말씀인데요. 그 어느 곳에서나 주체성을 갖고 전심전력을 다하면 진실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사 주인의식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의 역사를 기록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동안 긴 시간이 흘렀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06년 베를린 특파원 시절부터 귀국 후 6여 년간 70여건 씩 왔던 ‘레나테 홍’ 할머니의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다. 1950년대 동독에 유학을 갔던 북한 유학생 홍옥근씨가 첫눈에 반한 현지 여대생인 레나테와 결혼을 했지만 북한의 소환조치로 46년간 생이별한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그의 기사는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부는 평양에서 분단 후 첫 가족상봉을 하게 되었다. 유 동문에게 이 일은 크나큰 보람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애정이 담긴 기사’라고 이 사건을 기억했다.

유권하 동문은 ‘외대 언론인상’을 받은 것에 대해 “모교에서 주는 상이니만큼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독어독문학 전공으로 6년(학부 4년, 대학원2년), 경영대학원 2년, 대학원 국제경영 박사과정 수료 2년까지 외대 재학기간만 10년을 딱 채운 질긴 인연을 더욱 알차게 맺어가라는 격려의 뜻이 아닐까 한다”고 수상의 기쁨을 표현했다.



매순간 충실하게 쌓아올린 외대와의 10년, 언론과의 20년

유권하 동문은 1993년 중앙일보 기자로 시작하여, 2003년부터 4년간 베를린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부터 중앙일보 대변인 겸 전략기획실 기획팀장, 회장실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는 코리아중앙데일리 편집인 겸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경영총괄 상무를 맡고 있다. 제13회 삼성언론상, 제1회 노근리 평화상, SOPA 어워드 특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상수종 YTN 보도국장
(인도어과 82)

명운과 성장을 함께 하다 YTN과 나의 미래는 이제부터

상수종 동문은 1989년 CBS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이후, 1994년 YTN으로 옮겨 뉴스기획팀장, 국제부장, 정치부장, 취재부국장을 역임했다. 2014년 2월부터 선거방송단장을 맡아 6.4 지방선거 보도를 진두지휘했으며, 2014년 10월부터 YTN 보도국장의 중책을 맡아오고 있다.

상수종 동문은 자랑스러운 외대 언론인으로서 동문들에게 좋은 귀감으로 여겨지고 있다.

상수종



그는 YTN 개국 멤버이다.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1년 전인 1994년에, 당시 갓 태어난 YTN에 입사해 여러 선배 동료들과 함께 개국 준비 작업에 동참했다. 케이블TV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 얼마 되지 않는 시청자들을 향해 방송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힘든 시간도 술하게 보내야 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YTN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매체 중 하나로 우뚝 서 있다. YTN의 성장에 그가 차지한 몫이 분명히 있을 터였다.

“개국 요원으로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20년이 된 YTN은 사람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존경받는 중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잘 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따르면, 다매체 시대의 치열한 경쟁으로 언론계 환경이 급변하면서 YTN 역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10월 6일부터 YTN 보도국을 총괄하게 된 그의 어깨는 더욱 막중한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국장에 임명된 뒤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하되 품격 있는 방송, 철저한 사실 확인, 중요한 공공 의제를 선도하는 매체, 협업이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인으로서, 또 YTN보도국장으로서의 저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상수종 동문은 신입생이던 시절 우리대학 방송국, FBS 신입국원 모집 공고를 보고 기자에 응시했다. 2명을 뽑는데 거의 백 명 가까이 응시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대학방송국 생활을 하고 3학년 때는 방송국장까지 맡게 되었다. 외대생이 되자마자 언론인이 된 격이라고 할까.

그는 외대 언론인상 수상을 “모교인 외대와 외대가 배출한 기라성 같은 언론계 선배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말고 그 업적을 뒤따라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맹주익
공자아카데미 원장, 중국학부 교수

공자아카데미에서의 5년은 내 학문과 연구의 한 장을 이뤄

공자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부터 지난 5년여 기간 동안의 원장직 수행까지, 한국외대 공자아카데미의 모든 것을 함께 해 온 맹주익 원장. 이제 공자아카데미를 떠나면서도 그의 회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뿐이었다.

맹주익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가 해외에 중국어 교육과 문화 보급을 위해 설립한 교육 문화 기관이다. 중국에서 2004년 시작한 사업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세계 120개국 1,000여 곳에 설립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21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외대 공자아카데미는 약 5년 전인, 2009년 11월 31일에 개원했다. 당시 서울 지역 대학 안에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되기는 우리학교가 처음이었다. 맹주익 원장은 설립에 관한 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원장으로 선임되어 지난 5년간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여타 공자아카데미와 차별되는 우수한 기관으로 성장시켜왔다.

“우리 학교는 본래 외국어 교육, 국제화에 분명한 우위가 있습니다. 공자아카데미라는 기구를 통해 그 장점을 더 키우고 또 우리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해결 수 없는 다양한 교육모델 같은 것이죠.”

한국외대 공자아카데미만의 교육모델과 연수프로그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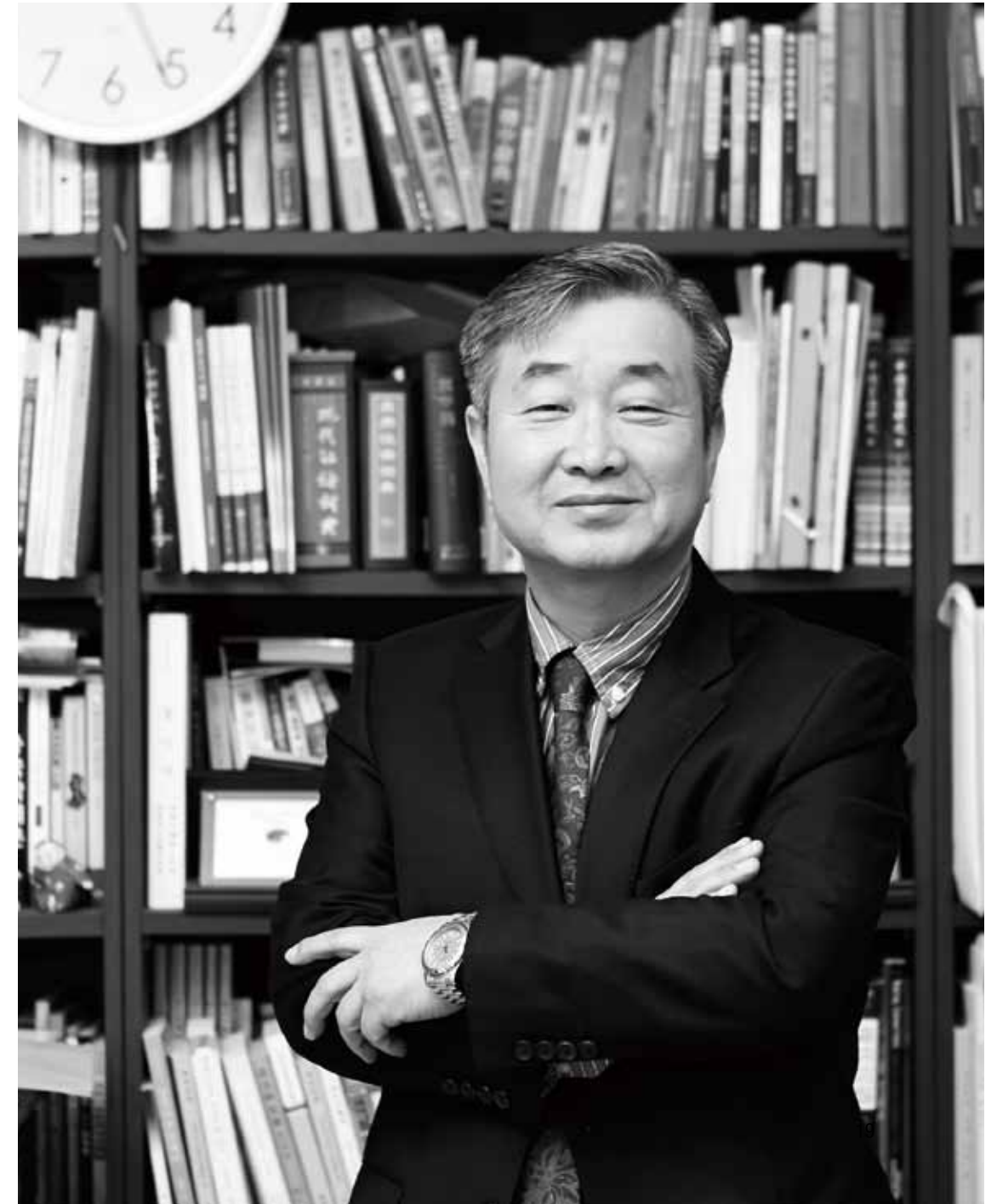
맹주익 원장은 한국외대 공자아카데미의 독특한 장점을 세 가지로 꼽았다. 그것은 설립 이후 그가 직접 주도해 세심하게 완성시켜 온 중국어 교육모델과 교사 연수프로그램들이었다.

첫째는 방학을 이용한 현지 단기연수 프로그램인 ‘한류중국어도모델’이다. 2주간 중국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제시된 과업을 조별로 수행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고 이체, 출금을 직접 해보기, 공원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리포트하기, 중고 시장에서 자전거를 사고 다른 시장에 되팔기 등, 다양한 과제들이 주어 집니다.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때는 학생들이 돈을 벌 어오기도 하더라고요.(웃음)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일종의 심리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단기 언어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교육모델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한류모델은 각 단계 단계가 아주 촘촘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져 좋은 연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극을 통한 중국어 배우기’이다. 중국어로 대본을 직접 쓰고, 발음연습, 연기연습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연극은 아주 집약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언어교육모델이다. 맹주익 원장은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우리학교 중국어 연극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중국북경외국어대학과 중국북경언어대학에서 ‘춘향전’ 공연을 펼쳤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사실 제가 그 동아리 선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 때 대만에 가서 공연을 하면 어떻게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당시에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현지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극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중국어에 푹 빠져들게 되었죠.”

세 번째로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한 것은 공자아카데미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이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과학교사들이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를 교육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한 연수는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예 중국 공자아카데미 측의 요청으로 한국외대 공자아카데미가 한국 전체 공자아카데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는 올해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맹 원장은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연수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들이야말로 공자아카데미에서의 추억의 전부”라며 “이 일들을 행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공자아카데미를 그만둔다고 해도 생활이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 본연의 교수로 돌아가 그동안 밀린 저술활동에 시간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5년 동안 한결 깊어진 맹주익 교수의 학문과 연구. 그것을 책으로 만나 볼 날이 머지않아 보였다.



황성돈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조직위원회
위원장, 행정학과 교수

황성돈

2008년 여름, 황성돈 교수는 평택시에서 열린 '제4차 실�크로드 시장(市長) 포럼'에 참가했다. 글로벌 시민단체인 세계시민기구(WCO)가 2006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실�크로드 도시들을 옮겨 다니며 개최하는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황 교수는 실�크로드 상의 대학들을 연결하여 세계평화 회복에 기여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그 해 10월 둔황에서 열린 WCO이사회에서 발표하였다. WCO는 황교수의 제안을 크게 반겼다.

개정 후원의 한계로 한동안 휴면상태였던 실�크로드 계획은 2014년 외대 김인철 신임 총장체제의 출범과 함께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일이 무르익을 때가 되었는지 실�크로드연맹 사업에 관해 공감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경주시를 실�크로드의 동단(東端)으로 세계에 알리려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등 과도 업무협약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4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실�크로드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국가 주요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위원회를 만들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1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총장의 임명으로 황교수와 김유경 국제교류·대의협력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사이버외대관 722호에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평화와 외대번영에 기여할 것

"실�크로드라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단어입니다. 상생, 교류, 소통, 풍요의 의미가 있죠. 서로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동등한 차원에서의 교류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인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심각한 종교 갈등과 남녀차별, 억압과 착취, 파괴와 남용이 심각합니다. 인류가 된 것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류종말을 고하는 아말겟돈 전쟁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예언이 허튼 말로 들리지 않을 정도지요. 통상 이런 문제는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나라의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질 못합니다. 나라의 연합체인 UN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때는 종교단체들이 나서야 하는데, 이 지역의 경우엔 종교단체들도 심각한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희망은 대학 뿐입니다. 대학은 그래도 이성과 감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르는 인류 지성의 장이고, 각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과 책임있는 시민들이 육성되는 곳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실�크로드 정신으로 굳게 뭉쳐 인류평화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생 및 학자 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미래 언젠가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3대 대륙은 평화의 대륙, 인류가 인류된 것에 무한한 긍지를 갖게 하는 대륙이 될 겁니다. 그 운동이 지금 우리

세계를 품을 외대의 100년 실�크로드에서 그 답을 찾다

여기 위대한 꿈을 배태한 새로운 시작을 소개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인 실�크로드 상의 젊은이들을 연대시켜 미래를 바꾸려는 이들의 꿈. 그 꿈을 담아 지난 12월 3일에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심에 있는 황성돈 교수, 그의 추진력이 예사롭지 않다.



외대에서 시작되는 거죠."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WCO,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민간기업과 학술단체, 직능협회 등과의 긴밀히 협력하며 우선 2015년 8월에 실�크로드 상의 100여 개 대학교들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와 세계실�크로드학회, 그리고 각 회원대학들의 동아리 대표들로 구성되는 실�크로드국제대학생연합 등 3개의 국제기구를 조직한 후, 학술교류, 문화예술교류, 체육축전을 통한 스포츠 교류, 대학생 국제연합자원봉사를 통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황성돈 교수. 그는 사실 '전자정부 구현'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학자이다. 1995년 청와대비서관을 하던 시절에 시작한 전자정부 구현 프로젝트는 1997년 한국외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2년에는 전자정부 구현에 민간위원으로서 헌신한 업적을 인정받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불현듯 실�크로드를 기치 삼아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그 동력을 '모교로서의 한국외대에 대한 보답의 절박함'에서 찾았다. "학자로서 가장 큰 영예는 모교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런 모교를 떠나야 할 수가 한 자리 숫자가 되면서, 이제는 모교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한 자기

재촉감 같은 것이 있었지요. 이러던 와중에 이번 외대 건학 60주년의 모토를 보는 순간 영감과도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 외대는 외국의 언어와 사정에 능통한 인재들을 키워 세계 곳곳에 배출하며 모토의 문자 그대로 세계를 품어왔습니다. 이제 '세계를 이끌 100년'인데, 무얼 가지고 세계를 이끌 것인가? 세계 사람들이 진지하게 공감하고 기꺼이 동참할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외대가 제시하고 추진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데,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을 창립하여 실�크로드 정신과 인류평화를 회복하는 다양한 국제적인 공동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외대가 앞장선다면 외대는 앞으로 오는 100년의 세계를 이끄는 대학으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직위원회가 준비중인 실�크로드 대학문화예술축제 (2015년 8월 예정)

- ▲실�크로드 백일장, 사진전, 회화전
- ▲실�크로드 대학민속제, 실�크로드 대학가요제
- ▲실�크로드 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
- ▲실�크로드 음식축제
- ▲실�크로드 명품물산박람회
- ▲실�크로드 대학, 도시, 국가 소개 박람회

※ 조직위원회 활동 참여 등에 관한 문의와 제안 : Tel. 02-2173-3581

아프리카학의 한국적 패러다임 구축 그 중심에 서 있는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는 1977년 '아프리카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다. 독립적인 아프리카 연구기관의 설치는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선구자적인 행보였다. 국내 아프리카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전국 유일의 아프리카학부를 보유한 대학, 한국외대. 그 전통은 사실상 아프리카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프리카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연구소로 선정되어, <아프리카, 안과 밖의 교차: 아프리카학의 한국적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아젠다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전체 10년에 걸친 연구 과업으로 내년엔 5년차를 맞는다. 황규득 연구소장은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실 그 동안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환경이 척박한 편이어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10년짜리 연구프로젝트는 그 의미가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크기도 워낙 방대하지만 언어, 문화, 정치, 제도들이 너무 복잡적이고 다양합니다. 10년의 연구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은 시작이고, 시작은 토대를 쌓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젠다 명에서 드러나듯 아프리카학에 관한 한국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헌적으로 서구적 연구를 수용하던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한국적 접근을 이루어보자는 것이다. 방법적으로는 실증적 연구를 지향한다.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도 현지조사이다. 연구진들은 연구지역을 일 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 방문해, 3-5주 정도 현지에 머물며 조사활동을 펼친다. 문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어 학제적 연구를 통한 시너지도 활발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번역총서', '학술총서', '교양총서' 등 아프리카연구소의 출판물들은 국내 아프리카연구의 귀중한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민족지총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녹취하고 설문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쓰여, 가나, 세네갈 등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소중한 자료들로 평가받는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와 콜로키움을 통해 연구자들 간에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를 초청해 연구의 지평과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한국아프리카학회와 함께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학회를 진행하며 1년에 한 번은 국내외 학자를 초빙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HK사업 4년차를 맞아 올해는 지난 11월 28~29일 이틀에 걸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에서 <제4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대중의 관심 환기에도 역점

연구 성과를 통한 사회와의 소통, 공익적 측면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월드투게더와 공동으로 주최해 오고 있는 <아프리카인 이해세미나>, 광명시 시청에서 개최한 사진전과 아프리카 관련 특강 등이 그것이다. 지난 10월 27일,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아프리카 문화축전> 역시 아프리카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행사였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NGO단체들과 협력해 아프리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황규득 연구소장은 "우리에게 왜 아프리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근 아프리카가 풍부한 천연자원개발을 위한 마지막 남은 미개척 시장이라는 이익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연구소는 HK사업 4년차를 맞아 11월 28~29일 이틀에 걸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에서 <제4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014학년도에 신설된 LD(Language & Diplomacy)학부의 강의모습

가치를 유지하라 그러나 늘 변화하라 한국외대의 신설학과에는 미래가 있다

한국외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맞이한다. 2014학년도에 신설된 '외교사관학교'
LD(Language & Diplomacy)학부가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그 포문을 열었다. 이제 LT학부(Language &
Trade), EICC(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학과, 지식콘텐츠학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가
그 획기적인 신생의 흐름을 이어간다.



LT학부 (Language & Trade)

2015학년도에 신설된 LT학부는 '통상사관학교'를 표방한다. 글로벌 산업 및 통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국외
대만의 특화된 언어교육과 첨단 통상지식에 바탕해 국제화 경험과 실무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통상 인재를 양
성한다.

입학정원 16명의 소수정예를 대상으로 LT학부는 최고의 교육을 지향한다.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글로벌기업의 해외 인턴십을 의무화한 것은 물론 컬럼비아대학교와 예일대학 출신 교수진을 영입해 학생들을 교
육할 예정이다. 장학 혜택 역시 파격적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4년 전액 또는 4
년 반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이중전공 선택 시 우선배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외대 통
번역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입학시험 일부가 면제되며 석사과정 전체 학비가 면제
된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우선 입사 및 기숙사비 면제의 혜택도 받게 된다. 최고의 인재를 더욱 최고로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ICC학과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EICC(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학과는 '국제회의 통번역 커뮤니케이션학
과'라는 뜻으로 한국외대 선도학과인 영어통번역학과와 새 이름이다. 변화하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부
응하여 혁신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EICC의 모든 교과 과정은 영어로만 구성·진행된다. 교과 과정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제회의
에서 최고의 언어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통역과 스피킹 중심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이다. 두 번
째는 영미권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문화중재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English for Communication 즉, 번역 및 문화중재 관련 수업이다. 목표는 통번역 능력과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양 날개로 다양한 국제영역을 날아다닐 수 있는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우수한 통번역 실무능
력을 넘어 영미 지역 및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통찰까지 고루 갖춘 인재들이 외대만의 독보적인 전통을
이어간다.



지식콘텐츠학부

자타공인 한국외대는 인문학이 강한 학교이다. 그리고 인류의 문화가 존재하는 한 인문학은 그 힘을 잃어본 적이 없다. 텍스트는 연속적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 해석과 쓰임을 달리하는 인문학. 한국외대 지식콘텐츠학부는 새로운 해석으로 글로벌 시대의 인문학을 추구한다.

2015학년도 신설된 지식콘텐츠학부는 이룬 중심의 인문학에서 나아가 실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1세기형 인문학으로의 진화를 꾀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토대로 글로벌 문화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인문학 기초 및 공통 과목을 접한 후 디지털인문학 입문을 시작으로 컴퓨터 언어학 입문, 언어콘텐츠, 사전과 온톨로지 등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세계의 문화원형 탐사, 문화트렌드와 코드탐사, 디지털시대의 문화마케팅 과목까지 섭렵한다. 다양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 문화지도 등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실습실 등의 환경도 갖추고 있다. 지식과 콘텐츠의 융합학문인 만큼 전공 분야가 따로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적용 분야가 넓다.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를 허물었다. 스마트폰, 로봇, 통신, 자동차 등의 첨단 산업분야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전자시스템의 융합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육 규모와 연구 환경 확장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한국외대 컴퓨터공학과와 디지털정보공학과가 통합, 개편하여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로 출범한다.

1학년은 공통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2학년 이상에서는 전공을 배정하지 않고 트랙 제도를 운영한다. 복수의 전공트랙을 운영하여 소프트웨어, 전자시스템 트랙 중 본인에게 맞는 세부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학제 개편과 함께 이미 신규 전임교원 총원,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IT 융합 인력과 외대 브랜드를 이용한 국제화 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곳곳에서 융복합을 외치며 경계를 허무는 요즘, 한국외대는 유행과 전망을 구분하고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거쳐 4개 신설학과를 선보인다. 2014학년도에 신설된 '외교사관학교'LD학부가 첫해에 35.3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43.9대 1이라는 높은 수시경쟁률을 기록해 유망학과로 떠오름에 따라 신중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신설학과들 역시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rend & Culture

동문작가와와의 만남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
 (SK건설, 법학과 91)

Art&Culture
 교수컬럼 : '사회적 텍스트'로서의 미생
 (김수환 교수, 러시아학과)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SK건설, 법학과 91) 동문을 만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깨우다

위풍당당한 회사생활이라니!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돕는 책이 있다. 회사생활 중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명백히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북. 인사팀 이부장이 멘토가 되어 들려주는 상세한 조언들이 담겨있다.



얼마 전 대기업 종합무역상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며 세간에 회자되었다. 인기의 요인은 여럿이겠지만 '그래, 우리 회사에 딱 저런 사람 있지' 싶은 캐릭터의 사실성도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사팀 이부장. 어딘가 예상했던 대기업 부장의 느낌이 아니다. 말투나 태도에서 관리자에게 으레 있을 법한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나이, 직위 등 사람을 두르고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상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일까. 그는 나이보다 한 참이나 젊어보였다.

이호석 동문은 1998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SK건설에 입사했다. IMF사태 직후라 합격취소 통보를 받게 될까봐 조마조마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8년차, 어느덧 그는 인사업무의 베테랑이 되어 있다. 그동안 그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자격증을 따고 HR 분야에서 최고자격증이라 불리는 PHR까지 취득했다. 다음으로는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는 책을 써보자고 마음먹었다. 글을 술술 잘 쓴다고 칭찬받던 유년시절부터 마음 한편에 품어오고 있던 꿈이기도 했다.

생각은 즉각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샘플원고를 써서 몇 군데 출판사에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길벗출판사의 편집장으로부터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샘플원고는 물론이거니와 '네이버지식인 전문가 답변서비스'에서 오랫동안 노무 상담을 해 온 것도 좋은 인상을 주었던 모양이다.

인사팀에 전화를 걸기 전, 먼저 읽어보면 좋은 책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는 그가 오랜 인사업무에서 겪은 실제 상담과 각종 관례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 지식을 정리한 책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 '퇴근 후나 주말에 투잡을 해도 될까?', '사내연애! 인사 상 불이익은 없을까?' 등 인사노무 담당 실무자와 취업준비생, 고용주 모두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들이 97개 주제로 정리되어 있다. 각 장마다 '표준근로계약서', '제직증명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등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서류도 들어있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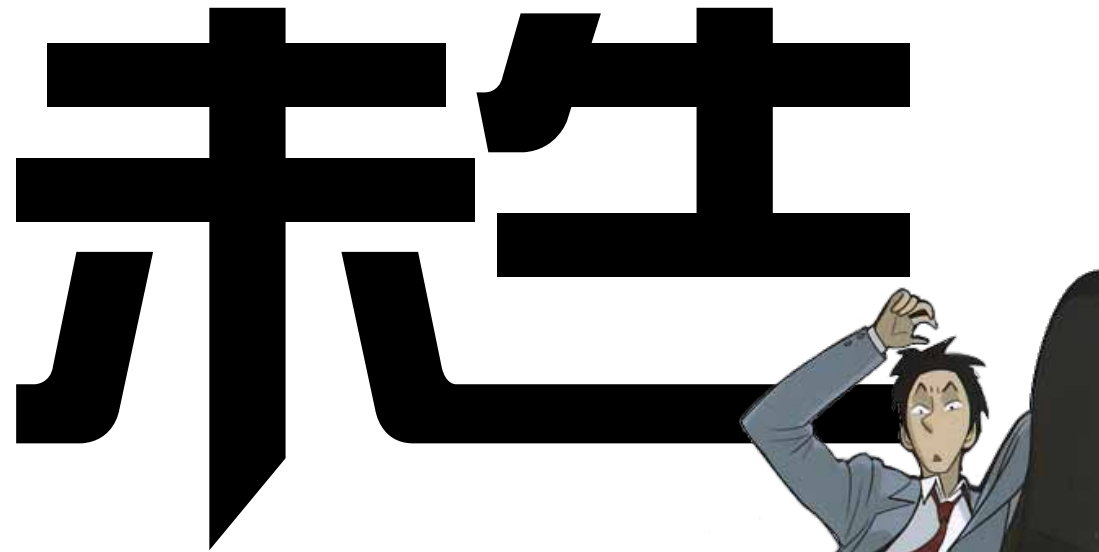
"제가 법학과 공법학회 소속이었는데, 당시 1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요, 독일의 법학자 예링이 남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명언입니다. 노동법은 사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책들은 인사담당자들을 위해 쓰인 전문서적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거나,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하며 책을 썼습니다."

책은 작년 2월에 출간되었다. 일간지와 방송에 신간으로 소개되었고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꾸준히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책의 출간을 계기로 그는 인사노무 전문잡지 〈월간 HR Insight〉에 '인사초보 허대리의 인사노무상식 익히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기회가 닿는다면 앞으로 HR업무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호석 동문은 자기 자신을 '이제 겨우 책 한 권 냈을 뿐인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는 평범한 회사원은 아닌 듯싶다. 쉬지 않고 한 발 한 발 삶을 전진시켜 온 지난 날들에도 그랬고 책의 완성을 계기로 시작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평범한 직장인 이부장을 넘어서는 인간 이호석의 여러 모습을 보여줄,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김수환
 한국외대 러시아학과 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학술원) 문학박사
 저역서: <책에 따라 살기>, <사유하는 구조>, <기호계> 등



'사회적 텍스트'로서의 미생



웹툰 화제작 <미생>이 올 하반기에 드라마로 제작되어 또 한 번 대중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화를 드라마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스토리 및 캐릭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생>이라는 작품이 '우리 시대의 (문체적) 텍스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데에는 이견을 갖기 어렵다. 어떤 작품이 '시대의 텍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아마도 그전 그 작품을 만든 시대의 사회적 현실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정념과 무의식이 해당 텍스트를 통해 '응축'되어 표현되었다는 점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 경우 해당 텍스트에 대한 탐색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다르지 않으며, 텍스트 '안쪽'에 대

한 판단은 텍스트의 '바깥'을 보는 관점과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왜 일에 의미를 부여했을까. 일일 뿐인데."(138수)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에 너무 진지하게 임한 나머지 조직 내에서 곤경에 처하게 된 오차장이 작품 말미에 읊조리는 대사다. 분명히 말하건대, 여기서 방점은 오차장의 '실패'가 아니라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의 '의지'에 찍혀 있다. 윤테호가 그리는 세계는 한 일종독자의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의지의 분투를 향해 있다. 요컨대, 그것이 묻고 있는 질문은 '당신은 왜 일 따위에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당신은 과연 제대로 살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일이 전부인 우리 시대의 삶', 출구 없는 노

동사회를 그리는 <미생>에서 읽어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20수) <미생>의 세계관은 '하찮고 평범한 것 속에 깃든 진실'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일상 미학의 분명한 계보를 잇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진정한 삶이 체험되는 시공간은 거대한 외적 변화의 상황이 아니다. 극적인 위기의 순간, 커다란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는 오히려 윤리적 선택에서 개인의 책임을 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일상 속의 사소하고 평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에서 비로소 '책임의 주체'로서 등장한다. 인간은 '구조'속에서 뿐 아니라 '일상'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며, 그 일상이라는 것이 "바둑판 위에서 의미 없는 돌은 없다."(33수) <미생>이 전하는 두 번째 포인트다. "잠깐, 아까 바둑은 1대1 싸움인데,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 당연하지! 우리 회사는 팀제니까. 우린 하나로 묶여지는 거야. 혼자가 아냐."(47수) <미생>은 바둑 실력 말고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한 청년이 중합상사의 화이트칼라 노동 세계를 배우는 이야기다. 하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듯이, 그것은 고졸 학력이 전부인 한 젊은이가 명실상부한 '팀'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팀의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은 (혼자 싸우는) 바둑세계가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체험이다. 팀이라고 표현되는 공동체의 문제, 오차장과 장그래의 도전과 실패로 이루어진 서사의 외적 틀을 채우고 있는 내부의 진짜 이야기, <미생>의 진정한 서사적 핵심에 해당하는 그것은 다른 아닌 '공동체'의 문제다. 회사라 불리는 일상적 노동의 공간 안에서, 그 삭막한 전경터에서 과연 공동체는 가능할까? <미생>이 제기하는 세 번째 포인트다.

웹툰 연재 당시에도, 그리고 드라마 방영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다. 장그래가 속한 '영업 3팀'이야말로 판타지의 절정이라는 것, 오차장 같은 팀장, 김대리 같은 사수는 결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과 허구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냉철한 반응 앞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두 겹의 시선'이다. 여하한 대중문화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언제나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념과 무의식을 '투영'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모든 대중문화는 바로 그 점에서 '징후'이자 '단서'가 된다. <미생>의 이야기에 울고 웃는 대중의 반응을, 달콤한 판타지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봉합해버리는 이데올로기의 희생물로 파악하는 대신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세계를 원하고 꿈꾸는 대중의 깊은 '열망'으로 바꿔 읽을 수 있을 때,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미생>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텍스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시대의 일터는 '의미'와의 결속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위상도 잃어버렸다. 우리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동의 시공간은 이제 다만 견뎌야 할 삶의 무게이거나, 혹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되자 노동의 시공간으로부터 또 한 가지 중요한 본질이 빠져버렸다. 바로 '성장'의 가능성이다. 노동은 더 이상 의미와 공동체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성장 역시 불가능해졌다. 노동(일)이 다만 밥벌이로 전락하는 동안, 그것이 채우지 못한 빈자리는 맹렬하게 다른 것들로 메워져 갔다. 교육과 훈련을 위로와 힐링이 대체하고, 협력과 성장을 달콤한 공감과 고독한 내면탐구가 대신한다. 그러니까 몸을 소진시키는 '과로사회'의 반대편에는 마음이 고픈 '허기사회'가 있다. 해답이 아닌 질문, 교본이 아닌 사례집에 해당하는 텍스트 <미생>을 둘러싼 관심과 논의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해명'하는 것에서 종결될 수 없다. 그 의미는 그것을 낳은 사회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만일 <미생>에서 모종의 새로움이 발견될 수 있다면, 그 새로움은 그 뒤에 도사린 우리 시대 자체의 '곤궁'을 재사유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화제작 <미생>을 '우리 시대의 (공공적)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웹툰 <미생>이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시대의 노동, 공동체 그리고 성장」(『안과 밖』, 2013)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HUFS News & Donation

HUFS 주요단신 뉴스
HUFS 학술 뉴스
HUFS 교류협정 뉴스
HUFS 교수동정 뉴스

지식출판원 신간안내
사이버한국외대 뉴스
사업지원처 뉴스

HUFS 동문동정 뉴스
HUFS 발전기금 뉴스
HUFS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Brief News

HUFS 주요단신 뉴스

HUFS NEWS

인도네시아 동문 간담회 개최



인도네시아 동문 간담회가 8월 28일(목), 인도네시아 코린도 본사 5층에서 열렸다. 김인철 총장은 이번 행사에서 "올해는 모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 미주 지역 동문회와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동문회가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차 HUFS 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총동문회(회장 권순한)와 우리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차 HUFS 발전위원회가 9월 4일(목) 오후 7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차르트홀에서 열렸다. 권순한 총동문회장, 김인철 총장, 학교 처장단, 총동문회 집행이사, 단위동문회 임원진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대총동문회와 우리학교의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단위동문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노어과 창설 60주년 특별강연 개최

노어과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러시아 석학에게 길을 묻다' 특별강연이 9월 5일(금), 서울캠퍼스 BRICs 국제포럼장에서 열렸다. 현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자 전 주러·주핀란드 대사를 지낸 이인호 교수는 '한국과 러시아: 서로 어떤 이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동문과 재학생을 비롯한 관객 5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러시아가 한국에 주는 다양한 함의에 관한 깊이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흥미롭게 경청하였다.

2014학년도 2학기 명예교수 임명장 및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2014학년도 2학기 명예교수 임명장 및 정부포상 수여식이 9월 5일(금),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임명된 교원은 김규진 교수(체코·슬로바키아어과), 김희영 교수(프랑스어과), 임팔용 교수(일본언어문화학부), Vincenzo Fraterrigo 교수(이탈리아어과)이다.

퇴직 교직원 감사패 전달식

퇴직 교직원 감사패 전달식이 9월 5일(금),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렸다. 김인철 총장은 장기간 학교를 위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감사패 전달을 하였으며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비록 학교는 떠나시지만 늘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취업박람회(GLOBAL JOB FAIR) 개최

'2014 한국외대 취업박람회(GLOBAL JOB FAIR)'가 9월 2일(화)~3일(수) 양일간 오바마홀에서 열렸다. 학생복지처(서울) 경력개발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취업박람회는 C.J그룹, 롯데그룹, 삼성물산(상사), 포스코 등 국내외 80여 개 기업의 참여로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우리대학 학생들의 외국계기업 선호도를 고려하여 한국IBM, 한국화웨이, 뉴스킨코리아, 한국쓰리엠 등 16개의 외국계기업 전문 상담부스가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기타 부대행사로 입사지원서 클리닉(국/영문), 외국계입사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및 인화, 면접메이크업 클리닉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선학부팀,

공공 커뮤니케이션 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한국PR학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대학생 공공 커뮤니케이션 콘테스트'에서 우리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선학부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리대학팀(지도교수 문빛,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교수)은 주수정, 이상희, 이건(이상 광고홍보 전공)학생이 한 조를 이뤄 '장애인 복지정책: 두물머리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4 수도권 대학특성화사업 선정



'2014 대학특성화사업'에 우리대학 'Locality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이하 L-사업단)'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매년 5억, 총 25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다. L-사업단은 국제지역대학의 프랑크학과, 러시아학과와 중앙아시아학과, 브라

질학과, 인도학과를 각각 마그레브, 유라시아, 중남미, 남아시아라는 광역 단위로 선정했다. 이 광역 단위들을 바탕으로 '광역특화전공'을 개설할 예정이다. 광역특화전공에는 공통기반과목, 해당 지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특화전공과목, 해당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용어나 현지어를 학습하는 제2전공어 과목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캠퍼스 취업박람회(GLOBAL JOB FAIR) 개최



'2014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취업박람회(GLOBAL JOB FAIR)'가 9월 25일(목), 글로벌캠퍼스 백년관에서 열렸다. 주요 대기업(샘표식품, 쌍방울 외)과 중소 기업(비타민하우스 외), 외국계 기업(DHL, ORACLE), 사회적 기업(갭이어),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 지원센터,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등 5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하였다.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명칭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명칭 공모전 시상식이 9월 3일(수), 백년관(본관)에서 열렸다.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 '신본관 명칭공모 선정위원회(가칭)'는 지난 4월 백년관 명칭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이번 명칭 공모전에서 인문대학 소속 박예슬 양이 <백년관>으로 대상을, 아프리카학부 이예슬 양과 프랑스학과 이선호 군이 <글로벌 프론티어관>과 <백향관>으로 각각 최우수상과 가작을 차지하여 상금을 받았다.

양캠퍼스 학생복지처, 총장과의 대화 행사 진행



양캠퍼스 학생복지처는 외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서울캠퍼스에서는 10월 10일(금) 미네르바 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캠퍼스에서는 11월 6일(금) 공학관 207호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사 운영 및 학교 생활에 있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요청 사항을 총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듣는 소통의 장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도서관 재건축 및 오바마홀 개방 등 학생들이 자유로운 질문과 각종 개선 요청사항을 제시하였고, 총장을 비롯한 실무 부서장들은 학생들의 요청사항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검토 및 개선하는 것을 약속하였으며,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총장의 후 외대 발전 구상 및 계획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2014학년도 하반기 학생 정기 총회 결의 안건에 대해 총학생회가 질문하고 총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한 콜롬비아 대사 초청 강연회 개최



'띠또 사울 പി니아(Tito Saúl Pinilla) 주한 콜롬비아 대사 초청 강연회: Colombia es Realismo Mágico'가 9월 29일(월), 미네르바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പി니아 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의 지리, 문화,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강연 내용에 대한 퀴즈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강의에 대한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2014 중앙일보 학과평가]

영어영문학과 최상위권으로 평가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인문·사회계열 학과평가에서 영어영문학과가 최상위권 대학으로 선정됐다. 영어영문학과는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0.44편을 쓰는 등 89개 영어영문학과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경영학과, 중어중문학과는 '상'에,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는 '중상'으로 꼽혔다. 한편, 이공계열 학과평가에서는 우리대학 산업공학과, 전자공학과, 통계학과가 '중상'그룹에 랭킹되면서 이공계열 분야에서도 우수함을 입증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감사의 선물 전달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생회')는 2학기 개강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월 4일(목)과 5일(금) 양일간 총장을 비롯한 안내실 직원까지 교내 각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선물과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가 평소 가지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명절맞이 전달한 것으로, 선물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 전액은 추석귀향버스 수익금으로 마련하였다.

HUFS-KOICA 국제개발석사과정, 문화교류행사 개최



국제지역대학원(원장 오승렬 교수)과 프랑스학과(학과장 이항 교수)는 HUFS-KOICA 국제개발석사과정 연수생과 재학생들 간의 문화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아미티에 프랑코포니(Amities Francophonie)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HUFS-KOICA 국제개발석사과정 연수생, 글로벌캠퍼스 프랑스학과 재학생, 프랑스학과 소속 인솔 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 '열린상담실' 개최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은 2014년 축제기간에 맞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일환으로 '열린상담실'을 개최하였다. 9월 23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생회관 앞에 열린상담실 부스를 설치하고, 양케이트 조사와 간이 심리검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양케이트는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식 정도, 진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 등 평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의 유형, 성취동에 대한 인식, 성문화상담실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민고등학교 글로벌캠퍼스 방문

한민고등학교(경기 파주 소재)학생들이 10월 15일(수), 글로벌캠퍼스를 방문하였다. 한민고등학교는 서울대 사범대와 교육 및 학술연구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방문한 한민고 학생들은 영어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로 우리대학과 어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글로벌캠퍼스 통번역학과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왕산체전 개최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9월 11일(목)부터 10월 6일(월)까지 1개월 동안 왕산체전을 진행하였다. 이번 왕산체전은 올해 새롭게 개관한 백년관(본관) 잔디구장과 체육관에서 진행되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과 소속학과 교강사의 뜨거운 참여로 치러졌다.

송화영(철학과 09) 학생,

미스월드 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우승

미스월드 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이 10월 10일(금),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우리대학 송화영(철학과 09)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 송화영 학생은 12월 14일(일), 영국 엑셀런던에서 열리는 제64회 미스월드에 한국대표로 참가한다.

2014 외대철학인의 한마당

철학과(학과장 김원명)에서는 총동문회(회장 손재목), 학생회(회장 조보성)와 함께 11월 16일(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2층에서 '2014 외대철학인의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철학과 학생들과 동문, 교강사들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성위 명예교수의 축사 등과 유아철학상 시상, 총동문회 장학증서 전달,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장학기금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 유아철학상 수상자: 개인부문(원종호 07, 정재은 10, 김누리 11, 김범석 11), 학회부문(사회비판 연구회, 시와 영상학회, 화가)
- 총동문회 장학증서 수상자: 박필성(06), 정동철(10), 이경수(11)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장학증서 수상자: 김우리(10), 박재석(11), 이도담(11), 양지연(14)

스페인어과, 고려제강 백인근 부사장

취업 특강 개최

스페인어과는 고려제강 백인근 부사장(스페인어과 75)을 초청해 11월 4일(화),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국제회의실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백 부사장은 "전공뿐만 아니라 전공 이외의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열정이 있으면 취업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크로아티아 국회의장, 본관 방문



요십 레코 크로아티아 국회의장이 9월 2일(화) 글로벌캠퍼스를 방문하였다. 크로아티아 국회의장은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총장실에서 김인철 총장을 접견하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Croatia - Changes after EU Accession'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본교에서는 김인철 총장, 이보화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김유경 국제교류 대외협력처장, 권혁재

동유럽대학 학장 등이 접견하였으며, 방문자는 요십 레코 국회의장을 비롯한 미라 마르티네스 주일 본크로아티아대사(한국대사 겸임), 다보르 보진노비치 국회의원선선협회 위원장 등이다.

경영대학원 해외 글로벌 CEO과정 홈커밍데이 개최



경영대학원(원장 권석균 교수)이 주관한 해외 글로벌 CEO과정 홈커밍데이가 글로벌캠퍼스와 강원도 태백시 초청으로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국내외 과정 동문원우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26(금)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행사는 해외 글로벌 CEO과정의 미주 지역(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동문 원우들과 올해 첫 실시한

인도네시아 과정을 수료한 동문 원우들 및 국내 글로벌 CEO과정 25기 재학중인 대학원생, 2014 미주 동문 초청 해외세미나에 참가했던 MBA 재학생 등이 2박 3일간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원생들 간의 친교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한국외대 동문으로서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노어과 창립 60주년 기념 축하의 밤 행사 열려



노어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러시아어 교육 60주년 기념 축하의 밤' 행사가 9월 19일(금) 오후 7시,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진희 동문회 회장이 동문 장학금 5,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세르게이 살로프 Aeroflot 러시아 항공 지사장이 항공권을 증정하는 등 노어과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이루어졌다.

국제학부 외국인학생과 한국전통문화 체험

국제학부에서는 보성 녹차 발 체험 프로그램을 10월 25일(토)부터 1박 2일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학부 소속 외국인학생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학부 학생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하여 국제학부 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독일어과 학과 창립 60주년 행사 개최



독일어과는 학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교내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독일어과 약력 소개 및 60주년 기념 영상 상영, Einheit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성하 대외부총장, 오한진 명예교수, 이상량 전임 동문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유럽대학 진학 및 장학 설명회 개최

제7회 유럽대학 유학 및 장학 설명회가 10월 30일(목), 우리대학 오바마홀에서 개최되었다. 주한 유럽 대사관, EU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센터 및 경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유럽 15개국 각 국가별 고등교육 관련기관에서 참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유럽 고등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홈커밍데이 개최



스페인어통번역학과는 2014년도 학과 홈커밍데이를 11월 8일(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백년관 스카이라운지에서 개최하였다. 졸업생과 재학생, 학과 교수진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대화, 학과 동아리 <호베네스>와 <플라멩코>의 스페인어권 노래와 춤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글로벌캠퍼스 경력개발센터

'2014 취업통계조사 Awards' 시상식 개최

'2014 취업통계조사 Awards' 시상식이 10월 28일(화) 오전 11시, 글로벌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렸다. '2014 취업통계조사 Awards'는 올해부터 글로벌캠퍼스 경력개발센터에 신설된 상으로 2014년 6월 통계조사에서 취업을 상승, 미상자 파악, 졸업생 취업처 발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졸업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처 조사에 가장 헌신한 학과를 선발하였다.

- 금상 : 김민천 학과장(체코·슬로바키아어과)
- 은상 : 신정환 학과장(스페인어통번역학과)
- 동상 : 조상영 학과장(컴퓨터공학과)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 성강연회 개최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11일(화), 사이버 대강당에서 성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청춘, 연애의 3가지 함정'이라는 주제로 tvN 스타강사 김지윤 소장(좋은연애상담소 UStory)을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남녀 간의 친밀한 관계, 책임지는 성문화 등 성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문화교육원, '엄마·아빠나라말 경연대회' 본선 개최



다문화교육원(원장 양민정 교수)은 '제4회 엄마·아빠나라말 경연대회' 본선을 11월 22일(토), 과천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말하기' 부문에서 미취학 부문 이성희 어린이, 초등 저학년 김윤성 어린이, 초등 고학년 이종혁 어린이가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 및 상패가 수여됐고, 총 39명의 어린이가 수상했다.

광역특화전공 설명회 개최

'광역특화전공 설명회'가 11월 11일(화),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014년 교육부 CK-II사업 국제화부문에 선정된 'Locality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신설 운영되는 마그레브 전공(프랑스학과), 유라시아 전공(러시아학과+중앙아시아학과), 인도-남아시아 전공(인도학과), 브라질-중남미전공(브라질학과) 이상 4개 로컬리티 전공 트랙으로 구성된 <광역특화전공>의 취지와 비전이 소개되었다.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진행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이란 주제로 커피테라피를 소개했다. 이혜선 교수의 진행으로 11월 11일(화), 18일(화)의 2차례에 걸쳐 실시 되었으며 카페 듀씨엘 대표 방현덕님과 펜로스 텅 전문가인 초우목인님을 초청하여 다양한 커피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25기 글로벌 CEO과정 수료식 개최



경영대학원이 주관하는 제25기 글로벌 CEO과정 수료식이 11월 18일(화) 오후 6시, Minerva Complex 국제회의실에서 이성하 대외부총장과 권석균 경영대학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성하 대외부총장의 환영사와 권석균 경영대학원장의 축사에서 지난 1년여 동안에 사회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수고한 수료생들께 그 동안에 노고를 치하하고 수료 후에도 진정한 외대인으로써 모교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4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해외홍보물 부문 우수상 수상

전략홍보팀에서 올해 제작한 홍보브로슈어(영문판)가 12월 3일(수)에 열린 2014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해외홍보물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4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

글로벌경영대학 동문 초청 간담회 개최



제1회 글로벌경영대학 동문 초청 간담회가 11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본관 스카이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 중 '제6회 자랑스러운 글로벌 경영인상 시상식'에서는 양정열 TNS코리아 대표이사(경영 82)가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글로벌경영대학의 발전방안과 동문회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 글로벌경영대학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들로 이루어졌다.

보험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기자협회 등이 후원하는 상이다. 1991년 한국사보대상으로 시작되어 올해 24회째이며 국가기관, 기업, 단체들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심사해 매년 우수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베트남 서기장 본교 방문 및 특강 실시



H.E. Nguyen Phú Tr ng(응웬 푸 쩡) 베트남 서기장이 10월 2일(목), 서울캠퍼스를 방문하였다. 서기장 일행은 이성하 부총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며 특히 우리대학 베트남어과의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남궁영 정치행정전문대학원장과 송정남 베트남어과 학과장이 배석하였다. 환담 후 국제관 애경홀로 이동한 서기장 일행은 "공동번영 및 지속성장을 위한 베-한 간 협력 강화"를 주제로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베트남어과 학생들과 국제지역대학원, 베트남어과, 주한베트남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글렌데일 자레 시나니언 시장 본교 방문 및 특강 진행



글렌데일 자레 시나니언(Zareh Sinanyan) 시장이 11월 24일(월), 김민철 총장을 예방하고 글로벌경영대학 'CEO리더십 특강'을 위해 우리대학을 방문하였다. 글렌데일시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도시이며, 최근까지 일본의 방해로 글렌데일시에 건립된 소녀상에 대한 국가적,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다. 자레 시나니언 시장은 경영학 전공 학생들에게 시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글렌데일시의 소녀상에 대한 의미에 대해 한 시간여 동안 특강을 진행하였다.

Brief News

HUFS 주요단신 뉴스

HUFS NEWS

HUFS 학술 뉴스

스칸디나비아어과, 창설 40주년 기념식 및 제22회 Norden-afton(북구의 밤) 행사 개최



서양어대 스칸디나비아어과(학과장 박노호 교수)는 창설 40주년을 맞아 스칸디나비아어과 동문회(동문회 회장 이종석(84) 및 스칸디나비아어과 학생회(과회장 서영인(12))와 공동으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를 학과 창설 40주년 기념 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 마지막인 29일에는 학과 창설 40주년 기념식 및 제22회 Norden Afton(북구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동문과 학부형, 재학생은 물론 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대사, Thomas Lehmann 주한 덴마크대사를 비롯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외교관, 기업인, 유학생 및 교민이 참석하여 창설 40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11월의 끝자락에서 스칸디나비아어과의 원어연극페(Lekarna), 원어노래패(Avance), 민속춤패(Tillsammans) 등이 펼친 신명나는 공연을 관람하였다.

스페인어과, 3개국 합작 영화제 개최

11월 17일(월)부터 11월 19(수)까지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와 駐韓 베네수엘라 대사관,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주한 에라도르 대사관이 함께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민중 무역 협정'의 전 세계적 주간을 기념하며 합작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11월 17일(월) 에라도르 영화 '허수아비 사리', 11월 18일(화) 볼리비아 영화 '네 아버지께 아침 인사를 하라', 그리고 11월 19일 (수) 베네수엘라 영화 '볼리바르, 시련 많은 남자'를 상영하였다. 특히 11월 17일에는 에라도르 니콜라스 투루히요(Nicolás Trujillo) 대사, 볼리비아의 구아달루페 팔로메케(Guadalupe Palomeque) 대사, 베네수엘라 야디라 이달고(Yadira Hidalgo) 대리대사가 참석하여 영화제를 더욱 빛내주었다.

국제지역대학 & 로컬리티 특성화 사업단 공동주관 제1회 창의발표 경진대회 'King of Presentation'



11월 26일(수) 오후 5시 30분, 제1회 'King of Presentation'대회(이하 KOP대회)가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지역대학 재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을 제고하는 한편, 발표력 및 팀워크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KOP 대회는 올해 첫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38개 팀이 지원, 2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국제지역대학 홍완석 학장(러시아학과)과 로컬리티 사업단장 김응운 교수(프랑스학과)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선대회 내내 예심을 통과해 본선무대에 오른 12개 팀은 주어진 10분간의 발표시간 동안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권민지 학생(프랑스학과 09학번)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었으며, 대상 트로피는 소속학과인 프랑스학과에서 다음 대회까지 1년간 보유하게 되었다.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 성문화상담실 이전 행사 개최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는 '성문화상담실'의 확장 및 이전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성문화상담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전 기념공연을 실시하였다. 11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학생회관 105호인 '성문화상담실'을 개방하여 성문화상담실의 이용방법과 역할 및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평소에 접하기 힘든 검사들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래패 동아리인 '해무리'와 인기 인디밴드 솔루션스의 기타리스트인 '나루'를 초청해 소규모 공연을 펼쳤다.

러시아연구소, 한-러 인문교류 포럼 개최



러시아연구소(소장 김현택, 노어과 교수)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아젠다: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국제교류 및 사회적 확산 차원으로 9월 19일(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인문교류 포럼: 양국 간 협력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지낸 클럽 이바세초프가 사회를 맡고, 러시아와 한국 측에서 각각 4명씩 총 8명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며 양국 문화교류의 현주소와 나갈 바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동유럽발칸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및 예술전시회 개최

동유럽발칸연구소는 국제학술대회와 예술전시회를 10월 17(금)부터 22일(수)까지 4일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와 예술전시는 분야를 뛰어넘어 '화합'이라는 대주제 아래 모든 학문, 예술 영역의 융합이 시도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대학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제미술비평가협회가 연합을 시도하며 진정한 화합을 실천하였다.

정치외교학과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정치외교학과 총동문회와 정치외교학과 학과장실, 글로벌정치연구소 주최로 정치외교학과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회가 11월 7일(금) 개최되었다. 기념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두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울러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은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정치외교학과와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학과의 미래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러시아연구소, 학과 연합 JSC 출범식 개최



러시아연구소는 10월 11일(토), 노어과, 러시아학과와 연계하여 JSC(Junior Scholars Club)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노어과·러시아학과 JSC'란 학과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문의 기초 원리와 세부내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노어과, 러시아학과, 러시아연구소 교·강사들이 지난학기부터 준비해 온 멤버십이다. 출범식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12명의 17기 멤버들을 비롯해 김현택 러시아연구소장, 강덕수 노어과장, 김수환 러시아학과장 등이 참가하여 뜻깊은 자리를 함께 이끌었다.

EU연구소, 정책 워크숍 개최

EU연구소(소장 김응운 교수)는 한-EU 정책워크숍 '고등교육에서의 협력 증진을 통한 한-EU 파트너쉽 구축'이라는 주제로 10월 29일(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워크숍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안들은 향후 정책연구 과정에 반영되어 한국 정부와 EU간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크로드 연구센터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

우리대학 실크로드 연구센터(소장 김현주 교수)는 '실크로드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실크로드의 정치, 경제, 인문학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11월 4일(화)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정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국제지역연구센터, 특별학술회의 개최



국제지역연구센터(센터장 정경원, 스페인어과 교수)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학술회의를 10월 24일(금),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B2)에서 개최 하였다. 학술회의는 1부(한국의 국제협력과 기여외교: 주요기관과의 대화)와 2부(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과 학술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제21회 국내초청강연세미나 개최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는 한양대학교 김기현 교수를 초빙하여 10월 16일(목), 글로벌 캠퍼스에서 제21회 초청강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기현 교수는 2006년 교육부가 주관한 10대 국가 석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약 30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남미연구소-한아르헨티나협회 학술대회



중남미연구소(소장 정경원 교수)는 (사)한국아르헨티나협회(회장 이정민)와 공동학술대회를 11월 6일(목),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르헨티나와 탱고>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러시아연구소, 네이버 캐스트와 협약 체결

러시아연구소(소장 김현택, 노어과 교수)는 네이버와 네이버캐스트에 러시아 150개 민족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인문한국사업(HK)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작업은 인문한국(HK)협의회가 네이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식백과사전 출간 작업의 일환이며, 전체 43개 HK연구소 중 우리대학 러시아연구소를 포함해 총 4개 연구소가 우선 선정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해외저명인사 초청강연 성황리 종료



교수는 'Themes on Writing'이라는 주제로 고대문자의 그래픽토폴로지, 문자의 개념과 개념화 방법, 동서양의 다양한 문자 전통에 대해 흥미롭고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한국외대 인문한국(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단장 전기순 교수, 스페인어과)는 올해 두 번째 해외저명인사초청강연을 10월 25일(토),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강연실에서 개최하였다. 브랜다이즈 대학교(Brandeis University)의 하비에르 울시드(Javier Urcid)

한국외대-통일연구원 교류협력 협정체결식 개최



한국외대(총장 김인철)와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9월 12일(금),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이덕선회의실에서 열렸다.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우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협약은 향후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와 MOU

김인철 총장은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를 방문하고 총장 면담 및 MOU를 10월 1일(수) 체결했다. 바쿠 국립대는 2012년에 MOU 체결된 대학이나, 바쿠대의 요청으로 새롭게 MOU를 체결하였다. 양교는 향후 좀 더 확대된 학문 및 학생, 교수 교류를 요구하였으며, 김인철 총장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우수 외국인 교원 초빙을 위한 교원 추천을 언급했다.

아제르바이잔 외교 아카데미(ADA)와 MOU



아제르바이잔 외교 아카데미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명문 국립대로 김인철 총장은 10월 2일(목) 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4명의 학생이 상호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외교 아카데미 측에서는 공동 Summer 및 winter school 프로그램 개발을 제의하며 우리대학의 우수한 교원 파견 및 단기 특강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

KDI국제정책대학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우리대학 간 협정서 체결식이 10월 10일(금), 서울캠퍼스 본관 이덕선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우리나라 경제분야에서 활동할 인재양성을 위해 교수, 학생, 학술자료 공유 등의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립외교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우리대학은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10월 21일(화), 대학본부 203호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김인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관 양성 및 교육기관이자 최고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과 이번 MOU를 계기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며 우리나라의 외교역량 강화와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전력공사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MOU 체결



우리대학은 한국전력공사와 10월 20일(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김인철 총장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MOU를 통해 한국전력의 글로벌화 및 해외 사업 확대에 발맞추어 전문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틀 마련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인철 총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우리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교육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전력이 글로벌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조환익 한국전력사장은 "한국외대와 한국전력의 이번 MOU는 한국전력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콜롬비아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와 7월 18일(금),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협정에 따라 양교는 학생 교류를 포함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인적 교류와 학술정보의 교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김인철 총장이 콜롬비아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후안 테헤이로 총장(Juan Manuel Tejeiro)을 만나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국제교류·대외협력처 김유경 처장과 윤경옥 팀장이 배석했다. 콜롬비아 국립대학은 1867년에 설립되어 4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콜롬비아 최초, 최대의 국립대학이다.

이성현 교수팀, CMOS 트랜지스터의 비선형 특성 원리 최초 규명



이성현 전자공학과 교수(교신저자)가 홍서영 석사과정생(제1저자)과 함께 실리콘 C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 증속 출력 캐패시턴스 특성의 원리와 고주파 채널저항의 존재를 최초로 규명한 논문을 전자공학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IET 'Electronics Letters' 24호(11월 20일자)에 게재했다. 이번 이성현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용 고주파 실리콘 집적회로 칩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자인 CMOS 트랜지스터의 비선형 출력 캐패시턴스 현상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고주파 등가회로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CMOS 집적회로 설계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원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정경원 중남미연구소장(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장 겸임)은 10월 22일(수) COEX Conference room에서 개최된 '2014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시상식'에서 인문-환경학계 간 융합을 통한 환경산업기술 기여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정경원 중남미연구소장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학술행회 및 환경포럼 등을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왔으며,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도 강화하여 왔다.

이성하 부총장,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지원사업 선정



영어학부 이성하 교수(대외부총장)가 한국연구재단 '2014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사업'에 12월 8일(월)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우수학자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사회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우수학자를 선정, 우수학자가 저술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 업적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는 이성하 교수를 포함해 총 14명이 우수학자로 선정되었으며 연구자별 5년간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성하 교수는 '어휘와 문법의 경계: 범언어적 복합부치사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과제로 선정됐으며, 문법화 이론과 인지언어학, 언어유형론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은수 교수, 한국독어독문학회 신입회장 선출



장은수 서양어대 독일어과 교수가 12월 6일(토) 열린 한국독어독문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장으로 선출됐다. 장 교수는 우리대학 학보사 주간과 외국어연수평가위원장,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 번역상 심사위원, 한국브레히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대근 교수, 세계인명사전에 등재



임대근 중국어통번역학과(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5년 판(제32판)에 등재된다. 임 교수는 중국영화연구를 비롯하여 아시아 대중문화 연구 등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성과와 국제 교류 활동을 수행해 온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교수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대중문화가 중국 내부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물론 아시아 내 주변국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석좌교수, 옥스브릿지 소사이어티 창립



박진 석좌교수(국제지역대학원)는 8월 26일(화),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옥스브릿지 소사이어티(OXBRIDGE Society) 창립식에 참가하였다. 영국 옥스포드대 Andrew Hamilton 총장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옥스포드 동문회(회장 박진 교수)와 케임브릿지 동문회(김동건 법무법인 바른대표)가 창립행사를 개최했다.

문빛 교수 한국PR학회 신진학자 학술상 수상

11월 28일 '통합과 소통을 위한 PR의 역할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4 한국 PR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리대학 문빛 학술연구교수가 박건희 박사과정생과 공저한 논문으로 신진학자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PR학회가 주관하는 신진학자 학술상은 PR학의 발전과 학문적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학회원의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홍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에미온이 있는 러시아어 관용표현 사전
김규형 지음 / 2014 / 320면 / 46판 / 15,000원

러시아 관용어를 제대로 이해 하면 러시아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한층 아름답게 하고 표현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뉘앙스를 짚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사전은 이러한 표현을 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한국에 주는 의미
김철민 외 지음 / 2014 / 480면 / 신국판 / 20,000원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을 비롯해 공산 체제 극복과 과거사 청산 등 민주화 내용을 심도 깊게 분석함으로써 동유럽 체제전환의 한국적 의미 모색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동유럽을 직접적으로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동유럽 전문가들의 시각과 연구, 그리고 그 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못해왔던 동유럽 현지 문헌들을 기초로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유라시아와 한반도 2030
김석환 지음 / 2014 / 296면 / 신국판 / 18,000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라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매우 유용한 교양서이자 전문서다. 이 책은 유라시아의 범위와 역사, 현실적 경계와 구분, 한반도와 글로벌 사회에서의 유라시아 지역의 중요성 뿐 아니라 오늘날 유라시아 내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 등을 간결하고 깔끔한 문체와 심도 깊은 분석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중국-러시아'를 다양한 차원에서 심도 깊게 분석해 국제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폭을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화연구와 문화콘텐츠
임대근 외 지음 / 2014 / 204면 / 국판 / 13,000원

문화연구와 문화콘텐츠에 대한 '실천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주제는 각각 영상콘텐츠의 대표적 장르로서 영화, 텔레비전 쇼, 출판 장르의 디지털화, 문화원형으로서의 스토리텔링, 문화공동체로서의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이 망라되었다. 사실 이러한 주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문화콘텐츠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장르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들이 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연구의 비판적 관점을 원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사할린 한인사
아나톨리 쿠진 지, 문준일·강정하 역 / 2014 / 376면 / 18,000원

19세기 후반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사할린 주에서의 한인 이주과정에 대한 총체적 학술연구의 결과이다. 방대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할린 섬으로의 자발적 그리고 강제 이주의 전제, 조건 그리고 원인들을 명확하게 특징지었으며, 한인들의 역사적 삶의 특별한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할린 한인이라는 연구 주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을 이루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가을축제 '2014 쿠페스타' 성공적 개최

'2014 쿠페스타'가 11월 15일(토),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개교 10주년을 맞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학부별 친목행사, 스튜디오 견학, 이미지메이킹 특강, <CUFS에게 바란다>, 오케스트라 공연, 만찬 등이 진행됐다. 특히, <CUFS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모든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신속한 회신과 대중성·예술성을 모두 갖춘 클래식 곡들로 진행된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감동적이었다는 평이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 금융회계학부, 공공관리학부 등 3개 학부 창과

2015-1학기부터 아세안지역경영학부, 금융회계학부, 공공관리학부 등 3개 학부를 신설한다. 사이버대학에서 유일무이한 아세안지역경영학부는 급성장하는 아세안지역의 전문가 양성에 목적을 둔다. 금융회계학부는 글로벌한 금융회계시장의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증과정 중심의 커리큘럼과 외국어 연계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또, 공공관리학부는 지방의회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의 실무 역량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사이버한국외대 2015-1학기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부터 2월 12일(목)까지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아세안지역경영학부, 금융회계학부, 공공관리학부 등 8개 학부에서 3,786명을 선발한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이중학적이 가능해 타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도 본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입학지원자는 학교 홈페이지(www.cufs.ac.kr)를 통해 온라인 입학원서를 작성 후 평가에 응시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73.2580.

사이버한국외대 TVC 제작

개교 이래 처음으로 사이버한국외대 TVC 제작을 위한 영상촬영이 11월 11일(화), 교내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영상홍보물에서는 사이버관의 이곳저곳과 사이버한국외대의 학내 모델, 외국인 교원 등 친숙한 얼굴을 찾아 볼 수 있다.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간 디지털케이블 TV 홈초이스 VOD 보기를 하면, 이번 사이버한국외대의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다.



학사행정 상담서비스 시간 연장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10월 1일(수)부터 평일 학사행정 상담서비스 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학생들은 학사, 행정, 학교생활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이버외대는 2004년 개교 이래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One Click - One Stop 헬프데스크를 운영, 연중무휴 24시간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평생전문가교육원 새 단장

평생전문가교육원이 12월 1일(월)부터 교총원의 자산 관리 전문가 과정, 김경호의 이미지메이킹 전문가 과정, 김경우의 디지털사진 전문가 과정, 이영진의 부동산경매 전문가 과정, 한광일의 웃음치료 전문가 과정 등 5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 전문가 과정은 사이버한국외대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각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명강사들을 초빙, 고품격 프리미엄 강좌들로 구성했다.

효과적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특강 실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개발을 위하여 교강사 및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10월 20일(월)과 10월 23일(목), 양일에 걸쳐 <효과적인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와 나눔>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양질의 강의 콘텐츠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강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진행되었다.



교수가 학생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사이버한국외대는 사이버대학의 학생들이 교수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10월부터 교수들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학부별로 속초, 아산, 인천 등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학생들을 방문하여 니즈를 파악한다. 와인파티, 현장 수업 참관, 간담회, MT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학생들의 정보 공유, 친목 도모, 학술동아리 출범, 스터디모임 개설 등 지역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을 끌어내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1대1 맞춤형 JK-TOUCU(1-1)식 실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가 도카이대학(東海大学)의 한국어 부전공 학생들과 1대1 맞춤형 JK-TOUCU라는 한일문화교류를 12월부터 진행한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학생과 일본 동해대학의 한국어 부전공 학생들 간의 어학실력을 증진시키고 폭넓은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일본어학부 재학생·휴학생·졸업생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외국어연수평가원 정규과정 개강

외국어연수평가원의 하반기 정규과정이 8월 4일(월) 개강하여 20주 정규 주·야간 과정과 10주 야간과정 등으로 진행 중이며 2015년 상반기가 모집 중에 있다. 해외 연수와 같은 효과를 얻어 실생활 및 현지에서 활용을 최대화하는 실용 외국어가 습득 가능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겨울방학 및 수시합격자 외국어특별과정은 2015년 1월 14일(수)에 개강 예정이다.

기업체 특수외국어 위탁교육

외국어연수평가원은 하반기 한국관광공사 중국어 집중과정 및 삼성전자 베트남어 위탁교육과정을 개강하였으며, 기업체 해외파견 임직원을 대상으로 롯데글로벌스쿨 베트남어 및 인도네시아어, LG CNS 영어 위탁교육과정을 종료하였다. 현지 적응이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외국어 교육과 파견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특성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

2015년 상반기 교육일정

과정명	기간	요일	강의시간
정규 20주 주간과정(77기)	2015.02.02~06.19	월~금	09:30 ~ 16:30
정규 20주 야간과정(81기)	2015.02.02~06.19		18:40 ~ 21:30
10주 야간 회화과정	2015.02.02~04.10	월, 화, 목, 금	19:40 ~ 21:30
	2015.04.13~06.19		
겨울방학특별과정	2015.02.02~04.06	월~금	09:00 ~ 17:00
장기유학시험대비반	2015.03.02~06.19	토	09:00 ~ 16:00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2015.03.02~06.19	수 or 목	18:30 ~ 21:20

TOMER 터키문화교육원

터키문화교육원에서는 터키어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터키 앙카라대학교 TOMER본부에서 파견된 원어민 교수의 강도 높은 회화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터키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까지 배울 수 있다.

통번역기초과정 개설

평생교육원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고급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번역기초과정'을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를 모집 중에 있다. 본 과정은 외국어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배우려는 기업인과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일정

기수	기간	강의 요일	강의 시간
2기	2015.01.10~05.23	월, 수 / 화, 목	19:00 ~ 22:00
		토요일	10:00 ~ 17:00

겨울학기 한국어정규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겨울학기는 12월 8일(월)부터 2015년 2월 17일(화)까지 진행된다. 겨울학기 등록 예상 인원은 580여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여 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한류에만 편승하지 않고, 외국인들 사이에 이미 '말하기 중심의 교육기관'이라는 평가가 자리잡게 되어서 앞으로도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한국어문화교육원,

외국인 예비대학 과정(FOUNDATION 과정) 개설

Foundation 과정은 해외 현지에서 면접 또는 서류 전형을 시행하고,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예비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6개월~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학부 수업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을 입학 전에 배양하게 한 후 입학시키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이다. Foundation 과정 1기는 2015년 3월 개강 예정이다.

한국어문화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과정 개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최고급 한국어 통번역과정을 2015년 3월부터 개설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은 1~6단계까지로 구성되며 6단계가 최고급 단계에 해당하지만, 일상적인 생활회화에서 탈피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요를 흡수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태국 청소년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한국교육부와 태국교육부와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주관하는 태국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12월 20일(토), 태국 탐마삿대학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태국 현지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태국 청소년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학년도 하반기 Job Fair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11월 29일(토) 오후 1시 30분 부터 4시까지, 대학원 1층 로비에서 채용박람회인 Job Fair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Job Fair에는 국내 유수의 6개 영어교육 기관이 참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TESOL전문교육원 과정생과 수료생들이 취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2015학년도 TESOL전문교육원

전기 일반전형 진행 및 특별전형 안내

2015학년도 전기 일반전형(1차 모집)을 11월 16일(일) 본관에서 진행하였다. 많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입시전형은 자료일기와 면접전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과한 인원은 내년 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2차 모집인 특별전형은 2015년 1월 5일(월)부터 12일(월)까지 접수를 받으며 1월 17일(토) 입학전형이 치러질 예정이다.

2015학년도 전기 특별전형 모집 안내

접수기간 : 14. 1. 5 ~ 1. 12	전형일자 : 14. 1. 17(토)
* 수업기간 : 15년 3월 2일(주중반)/6일(주말반)부터 7월 말까지 약 5개월	
* 지원자격 : 국내외 학사 학위 소지자 혹은 15년 2월 졸업예정자	
*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tesol.ac.kr)을 통해 확인	

2015학년도 전기 특별전형 대비

입학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015학년도 전기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입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설명회는 1월 3일(토) 오후 3시, 대학원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차 설명회는 1월 7일(수) 오후 7시, 동일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TESOL 과정소개, 특전, 입시과정안내(특별전형), 인턴십, 교수진과의 만남 및 Q&A 등의 행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TESOL for Moms and Dads

2기 수료식 및 3기 모집 예정

미취학 아동을 기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TESOL for Moms and Dads 2기 과정의 수료식을 11월 29일(토) 사이버관에서 개최하였다. 본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집에서 아이에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법을 배우 엄마표 영어전문가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본 과정의 3기 과정은 2015년 2월 개강을 목표로 1월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02-2173-3503~4, 3557)

영재교육원,

2015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완료

'2015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9월 5일(금)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공지를 시작으로 11월 14일(금)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우리대학의 우수한 강사진 및 영재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창의인재양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격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재교육원,

2014학년도 정규과정 종료

2014학년도 정규과정이 12월 13일 2학기 산출물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정규 수업과 방학 중 집중이수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료식은 2015년 2월에 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 예정이다.

FLEX 정기시험 2015년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시행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시행영역 : 듣기/읽기, 쓰기, 말하기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1.29~02.04	03.01	03.19	03.31
2회	04.17~04.23	05.17	06.04	06.16
3회	08.06~08.12	09.06	09.24	10.06
4회	10.15~10.21	11.15	12.03	12.15

7개 언어 공통 시행 (쓰기, 말하기 영역은 국가공인자격 인증 시험이 아닙니다.)

2014년 삼성생명 Intensive Biz English 과정 입소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원장 김철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은 10월 6일(월) 삼성생명 임직원 8명을 대상으로 『2014년 삼성생명 Intensive Biz English Course』과정 입소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10월 6일(월)부터 10월 30일(목)까지 4주 합숙과정으로 진행되는 본 과정은 Listening&Pronunciation, Communication Strategy, OPic, Writing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그룹 2014년 하반기 글로벌 전략어과정 수료식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은 12월 19일(금), 『삼성그룹 2014년 하반기 글로벌 전략어과정』 수료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삼성그룹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파견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10주간 진행했던 동 과정에는 베트남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등 3개 언어, 1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금번 참여 임직원은 과정 수료 후 삼성그룹의 평가를 거쳐 해당 국가의 주재원으로 다음달부터 파견될 예정이다.

동문출간



최필영(프랑스어 99)
『디데이-1944년 6월 6일,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 옮김(일조각)



이준(철학 83)
『한권으로 읽는 서양철학 이야기』 (지식갤러리)



손관승(독일어 78)
『과태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여행』 (새녘)

동문동정

이희준 동문,

한국 전자·IT산업 발전 유공자 선정

이희준 대덕GDS(주) 대표이사/사장(포르투갈어 73)은 10월 14일(화) 제9회 한국 전자·IT의 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한국 전자·IT산업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주혁 동문,

제16회 양성평등상 보도부문 대상 수상

김주혁 서울신문 선임기자(국장급)(영어 78)가 제16회 양성평등상 보도부문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동문은 가족과 양성평등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남녀'라는 기획물을 서울신문에 매주 연재함으로써 가족 행복과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상해/화동 동문회,

동문가족 운동회 개최

상해/화동 동문회(회장 최환)는 10월 25일(토), 동문가족 운동회를 상해한국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운동회는 탁구, 배트민턴, 축구, 족구 등 다양한 종목들을 통해 동문가족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남궁영 동문,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직무 수행



남궁영 정치행정전문대학원장(정외 76)은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회장으로 10월 5일(일)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여 대만국제관계학회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대만 한국대표부(조백상 대

사) 초청으로 주대만 한국대표부를 방문을 하였다. 10월 17일(금)에는 길정우·심윤조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의 대중·대일 외교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국회에서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10월 30일(목)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주평화연구원(JPI)과 '다자적 국제협력과 한국의 외교'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11월 14일(금)부터 15일(토)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여 일본 국제정치학회(JAIR)와의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동북아 평화질서와 한·일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외회회(재외대 회문고 동문회),

2014년도 장학금 수여식 및 강연회 개최



재한국외대 회문고 동문회(이하 외회회)는 201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 및 '사회로 나오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3가지'라는 주제로 10월 24일(금) 오후 7시부터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302호에서 강연회를 개최 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회회 8명의 선배들이 근무하면서 경험한 내용과 직장생활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하였다.

중국어대학 총동문 홈커밍데이 행사 개최

'중국어대학 총동문 홈커밍데이' 행사가 '선배배간 친교와 화합의 자리'라는 주제로 11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55학년부터 86학년까지 후학을 양성하였던 정기업 교수를 필두로 김상근 교수, 지재운 교수, 박재우 중국어대학 학장 등 100여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언론

성명	인사내용	학적
이치문	국제신문 총괄이사	영어80
김성수	KBS 아트버전 이사	이탈리아78
고동준	조선일보 CS본부 총괄팀 차장	아랍어86
임정효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국제통상80
김진홍	KBS미디어 콘텐츠기획본부장	영어81
상수중	YTN 보도국장	인도어82
김정희	YTN 뉴스기획팀장	신문방송89
김주환	YTN 전국부장	아프리카어85
김상익	YTN 스포츠부장	영어86
김승환	YTN 편집위원	신문방송04(박)
신홍범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부장	신문방송85
강병준	전차신문 정보사업국 국장직대	경제87
정재호	국민일보 통합뉴스룸 담당 부국장	신문방송83
최재혁	MBC 특보	타기어80
김광민	MBC 드라마본부 드라마운영부장	독일어80
김구산	MBC 예능국 제작2부장	정치외교88
류기혁	서울신문 온라인 뉴스국 부국장	정치외교83
전호림	매경미디어그룹 매경출판 대표	일본어81
이창섭	코리아타임스 대표이사겸 발행인	일본어77
사동석	코리아타임즈 논설위원실 주필 겸 상무(최고품질책임자)	영어77
김강석	SBS 편성본부 홍보국장	신문방송78
이재완	SBS 경영지원본부 아카이브 팀장	스페인어84
박재만	SBS A&T 사장	노어76

정부기관

성명	인사내용	학적
한한우	서울시교육청(유·초등) 학생교육원 가평 영어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어린이영교(석)03
임종근	서울시교육청(중등)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 연구부장	독일어교육76
전종보	서울시교육청(중등) 당산중학교 교장	한국어교육76
최철순	서울시교육청(중등) 교육과정정책과 중학교교육개선팀장 장학관	영어교육(석)92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사과장	아프리카어86
우계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기획팀장	프랑스79
고영훈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서기관	영어교육98
이민재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비서관	네덜란드어89
정준희	통일부 정책분석국 국장	행정81
송운수	국방부 육군 준장	정치외교82
심영종	경기도 양주시청 청소행정과장	포르투갈어82
임근형	외교부 현황거리대사	정치외교78
장명수	외교부 표출콜비아대사	스페인어80
여운기	외교부 튀기나대사	독일어85
최종현	외교부 튀네덜란드대사	정치외교76
고은영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노어92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 본부장	영어82

공사

성명	인사내용	학적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	영어82
조남용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금융본부장	경제78
황우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장	법학82
안혜성	한국무역보험공사 발전금융부장	프랑스어83
이승환	한국투자공사(KIC) 상무	경제87
임영배	에너지관리공단 상임감사	행정86
박헌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장	독일어87
강병수	KOTRA 운영지원실 부장	중국어90
임성주	KOTRA 기획조정실 부장	국제통상91
안정준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실장	신문방송86
여태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관리 처장	영어84
안상준	인천국제공항공사 Airside사업팀 팀장	영어89
박인식	한국관광공사 MICE진흥팀 팀장	스칸디나비아어83
김기홍	한국관광공사 코리아MICE뷰로실 실장	스페인어81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장	프랑스어79
양문수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실 실장	스페인어78
이병찬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로그래밍팀 팀장	일본어84
김태윤	한국관광공사 국내스마트관광팀 팀장	일본어85

금융

성명	인사내용	학적
양학준	대신증권 상계동지점 부장	중국어83
정지영	대신증권 수지지점 영업이사	독일어86
석승징	외환카드본부장(정보보호최고책임자)	노어82
이완재	KB국민은행월명동지점장	영어84
정하영	한화생명 인적지원실장(본부장)	국제통상82
이재형	현대증권 리테일부문장 상무	국제통상81
방주혁	한화생명 서울지역단 단장	독일어83

기타

성명	인사내용	학적
김동진	새누리당사무처 직능국장	경영정보87
김희남	새누리당사무처 민원국장	법학89
송민석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초교육대학장	영어79
박헌순	한국고전번역원 교무처 처장	한국어교육78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포르투갈71
이성조	현대중공업 전무	인도77
김현성	현대중공업 인력개발부 상무	인도81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무처장	스페인어78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법학84
이승권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서비스부 국제관리리팀 팀장	법학89
최동연	하안손산업 총괄이사	프랑스어86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편집출판본부장	스페인어85

Donation

스페인어과 PRODIOSA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14학년도 2학기 PRODIOSA 장학금 전달식'이 9월 12일(금), 서울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열렸다. PRODIOSA 장학금은 박재진(스페인어과 74) 동문이 출연한 스페인어과 장학기금으로 지난 2009년 1학기부터 매 학기 수여하여 이번 12회 장학금까지 수여된 총액이 1억 7천만 원이며, 수혜 학생은 모두 63명이다. 이번 학기에는 스페인어과 7명 학생이 선발되어 2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었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장학금 약정식 및 수여식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총동문회(회장 장성택, 터키 74) 장학금 약정식 및 수여식이 10월 28일(화) 12시,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이덕선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는 2013년 학과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4천 4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으며, 학과 동문회에서는 향후 1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동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학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OTC총동문회 학교발전기금 약정식



한국외국어대학교(제119학군단) ROTC총동문회(김덕훈 회장, 중어 73) 학교발전기금 약정식이 9월 1일(월) 오후 5시, 서울캠퍼스 이덕선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ROTC총동문회는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작은 성금이나마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향후 3년간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하였다.

여성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및 발전기금 기탁



여성동문회 정기총회가 10월 18일(토) 오후 12시, 서울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장학금 및 학교발전기금 전달식, 회장 이취임식, 동문 특강(장일범, KBS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권순한 총동문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여성동문회의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정치외교학과 <정외인의 밤> 개최 및 장학금 기탁

정치외교학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와 '정외인의 밤' 행사가 11월 19일(금) 오전 10시부터 미네르바골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인철 총장, 이운룡 국회의원 등 정치외교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장학금 전달식과 제1회 '자랑스런 정외인'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는 12월 10일(수), 2014학년도 2학기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학기 '총동문회 장학생'으로는 학교발전기여도와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서울 캠퍼스에서는 박지영(스페인어 13), 김동준(스페인어 09), 유영채(스페인어 14), 최승환(스페인어 14) 학생이 선정되었고,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최충환(스페인어통번역 11), 장우경(스페인어통번역 09), 정중호(스페인어통번역 11), 노혜람(스페인어통번역 11), 유지희(스페인어통번역 13), 전혜진(스페인어통번역 13) 학생이 선정되었다.

더불어, '등록금 한번 더 내기'발전기금 장학생으로는 서울 캠퍼스 마상민(스페인어 11), 신나라(스페인어 11) 학생이 선정되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하영옥(스페인어 75,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회장을 비롯하여 스페인어과 교수진과 각계 각층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4년에는 스페인어과 정경원(스페인어과 75)교수가 천삼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후배들과 동문들 그리고 동료 교수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현재 스페인어과에는 총동문회 장학금이 약 1억3천6백만원, 발전기금이 약 5천만원 적립되어 있다.

Donation List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곽태석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동문	120,000
권영아	서양어대학 노어과 91 동문	120,000
권혜선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00 동문	1,200,000
김군선	서양어대학 노어과 68 동문	120,000
김기재	법과대학 법학과 84 동문	1,000,000
김대수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동문	1,560,000
김대현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85 동문	4,000,000
김동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85 동문	120,000
김범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92 동문	120,000
김상원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6 동문	120,000
김석찬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92 동문	50,000
김예원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8 동문	3,000,000
김정규	서양어대학 노어과 85 동문	120,000
김정민	영어대학 영문학과 06 동문	1,200,000
김정	서양어대학 노어과 55 동문	3,000,000
김효정	서양어대학 노어과 01 동문	120,000
나인애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8 동문	1,200,000
류재봉	영어대학 영어과 59 동문	1,000,000
문병환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120,000
민화창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01 동문	1,200,000
박관수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84 동문	50,000,000
박내양	서양어대학 노어과 76 동문	120,000
박영석	영어대학 영어과 57 동문	18,000,000
박재진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4 동문	8,426,700
배은경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동문	1,200,000
백종권	서양어대학 노어과 84 동문	1,320,000
서기원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1,200,000
서승일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120,000
서종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73 동문	5,000,000
손태수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98 동문	240,000
송대현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6 동문	240,000
신윤경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8 동문	120,000
신윤철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전공 04 동문	1,200,000
안상범	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 98 동문	1,200,000
오순명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74 동문	2,000,000
유병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3 동문	480,000
유재형	서양어대학 노어과 96 동문	120,000
윤상진	서양어대학 노어과 89 동문	120,000
윤성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89 동문	5,000,000
이상국	법과대학 법학과 83 동문	2,200,000
이수연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06 동문	1,200,000
이승원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00 동문	1,320,000
이영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5 동문	100,000
이용권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동문	120,000
이은순	서양어대학 노어과 73 동문	120,000
이재용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1 동문	1,200,000
이정훈	서양어대학 노어과 00 동문	120,000
이주희	서양어대학 노어과 95 동문	120,000
이진희	서양어대학 노어과 76 동문	120,000
이태중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3 동문	480,000
이학현	인문대학 사학과 85 동문	1,0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이화원	사회과학대학 방송영상전공 06 동문	120,000
장연수	국제지역대학 국제스포츠레저전공 10 동문	500,000
장윤호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동문	120,000
장일범	서양어대학 노어과 87 동문	120,000
장한익	서양어대학 노어과 01 동문	120,000
장화식	박사 무역학과 01 동문	12,000,000
전민근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00 동문	120,000
전철민	서양어대학 노어과 92 동문	120,000
정세진	서양어대학 노어과 82 동문	120,000
정연우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동문	120,000
정원락	서양어대학 노어과 91 동문	120,000
정원수	영어대학 영어과 80 동문	1,000,000
정중기	박사 국제경영학과 10 동문	2,000,000
최동규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동문	120,000
최백범	서양어대학 노어과 05 동문	1,200,000
최영규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4 동문	120,000
최재선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06 동문	120,000
하중균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03 동문	120,000
한만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5 동문	120,000
한상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9 동문	120,000
한철호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8 동문	20,000,000
함영준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240,000
허철부	영어대학 영어과 57 동문	1,000,000
황송이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05 동문	1,200,000
황수진	국제지역대학 인도학과 01 동문	1,200,000
김동선	前 총장	100,000
고영훈	외대교수	2,800,000
권원순	외대교수	1,050,000
김혜진	외대교수	1,440,000
박정운	외대교수	2,300,000
변해철	외대교수	5,000,000
송준서	외대교수	120,000
신정아	외대교수	2,400,000
오종진	외대교수	275,000
이종욱	외대교수	1,500,000
장태용	외대교수	2,400,000
최완철	외대교수	5,000,000
최철	외대교수	2,700,000
홍완석	외대교수	3,120,000
황성우	외대교수	120,000
강성위	명예교수	1,000,000
이숙자	명예교수	10,000,000
장실	명예교수	120,000
Lyman McLallen	퇴직교원	5,000,000
외대비전교회	교내단체	1,000,000
(재)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12,000,000
네덜란드어과동문회	동문단체	20,000,000
동양어대학 이란어과 동문회	동문단체	6,582,371
만원의 행복	동문단체	3,000,0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동문회	동문단체	80,000,000

Donation List

HUFS 발전기금 전체 약정자 명단

HUFS NEWS

2014. 01. 01~2014. 11. 3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강덕영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65 동문	7,000,000
강신혜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09 동문	500,000
고병희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94 동문	480,000
곽태석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동문	120,000
구중재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82 동문	100,000
권기찬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70 동문	1,080,000
권순철	영어대학 영어과 80 동문	1,000,000
권영아	서양어대학 노어과 91 동문	120,000
권정민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동문	3,000,000
권정현	석사 노어노문학과 80 동문	480,000
권혜성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78 동문	480,000
권혜선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00 동문	1,200,000
기혜경	인문대학 언어인지학과 96 동문	20,000
김경민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06 동문	1,000,000
김군선	서양어대학 노어과 68 동문	120,000
김군선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81 동문	5,000,000
김기재	법과대학 법학과 84 동문	1,000,000
김대수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동문	1,560,000
김대현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85 동문	4,000,000
김동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85 동문	120,000
김범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92 동문	120,000
김병태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73 동문	2,400,000
김상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6 동문	120,000
김석찬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92 동문	100,000
김석찬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80 동문	600,000
김성희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5 동문	3,000,000
김세원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63 동문	1,000,000
김승수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87 동문	1,440,000
김승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6 동문	13,800,000
김영일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86 동문	480,000
김영재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96 동문	200,000
김예영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8 동문	3,000,000
김용균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91 동문	1,440,000
김용주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0 동문	100,000
김용용	영어대학 영어과 85 동문	480,000
김원태	영어대학 영어과 62 동문	480,000
김윤정	영어대학 영어과 84 동문	480,000
김인선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65 동문	12,400,000
김일권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87 동문	1,440,000
김정구	서양어대학 노어과 85 동문	120,000
김정민	영어대학 영문학과 06 동문	1,200,000
김정훈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83 동문	4,062,580
김종윤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90 동문	480,000
김종진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0 동문	100,000
김중혜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10,000,000
김주영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71 동문	720,000
김준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93 동문	120,000
김지현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02 동문	120,000
김창식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75 동문	1,000,000
김철균	상경대학 경제학과 01 동문	300,000
김형	서양어대학 노어과 55 동문	3,000,000
김혜창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91 동문	5,100,000
김현석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1,000,000
김현정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71 동문	2,400,000
김형준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2 동문	500,000
김홍식	영어대학 영어과 75 동문	1,440,000
김효정	서양어대학 노어과 01 동문	120,000
나인애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8 동문	1,200,000
남기창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81 동문	480,000
류재봉	영어대학 영어과 57 동문	1,000,000
문국현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1,000,000
문병환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12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문수연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1,000,000
민희창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01 동문	1,200,000
박관수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84 동문	70,000,000
박광화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84 동문	1,000,000
박근익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4 동문	1,800,000
박내양	서양어대학 노어과 75 동문	120,000
박도화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5 동문	300,000
박명석	영어대학 영어과 57 동문	21,000,000
박미화	영어대학 영어과 82 동문	1,020,000
박수진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2 동문	1,000,000
박승명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동문	3,000,000
박영주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2,500,000
박용철	법과대학 법학과 84 동문	120,000
박윤근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2 동문	100,000
박은정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97 동문	100,000
박재인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4 동문	8,426,700
박지영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99 동문	480,000
박현정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04 동문	100,000
배은경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동문	1,200,000
배한경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83 동문	1,000,000
백영철	영어대학 영어과 81 동문	480,000
백종권	서양어대학 노어과 84 동문	1,320,000
서기원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1,200,000
서범근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동문	3,000,000
서승우	서양어대학 노어과 88 동문	120,000
서승일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120,000
서종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73 동문	10,000,000
서영순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1 동문	1,440,000
손광익	서양어대학 노어과 75 동문	1,200,000
손세준	동양어대학 터어키어과 05 동문	480,000
손진관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300,000
손태수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98 동문	240,000
송경호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300,000
송대현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6 동문	240,000
송미경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0 동문	100,000
송철준	영어대학 영어과 74 동문	480,000
신윤경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8 동문	120,000
신윤철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전공 04 동문	1,200,000
신지안	석사 중어중문과 04 동문	100,000,000
임경숙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6 동문	120,000
안남연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74 동문	1,000,000
안상범	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 98 동문	1,200,000
안순원	석사 국제금융학과 10 동문	480,000
양인집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76 동문	2,400,000
엄정현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2,500,000
오순명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74 동문	2,000,000
유병권	동양어대학 터어키어과 92 동문	480,000
유병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3 동문	480,000
유승호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08 동문	300,000
유시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84 동문	120,000
유영미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82 동문	1,440,000
유재형	서양어대학 노어과 96 동문	120,000
윤대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1 동문	5,000,000
윤미섭	법과대학 법학과 05 동문	1,000,000
윤상기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3 동문	2,000,000
윤상진	서양어대학 노어과 89 동문	120,000
윤성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89 동문	5,000,000
윤영진	영어대학 영어과 69 동문	2,000,000
윤인철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8 동문	3,000,000
이가옥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1,000,000
이경옥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0 동문	480,000
이경주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0 동문	3,0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이덕선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58 동문	1,037,800,000
이덕환	인문대학 철학과 81 동문	1,000,000
이도윤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70 동문	1,000,000
이매리	영어대학 영어과 90 동문	480,000
이보훈	영어대학 영어과 86 동문	480,000
이상국	법과대학 법학과 83 동문	2,200,000
이석호	인문대학 철학과 84 동문	480,000
이상환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90 동문	1,100,000
이수연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06 동문	1,200,000
이승원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00 동문	1,320,000
이영도	통번역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81 동문	480,000
이영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5 동문	100,000
이용권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동문	120,000
이용출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82 동문	480,000
이우공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4 동문	1,000,000
이은순	서양어대학 노어과 73 동문	120,000
이재용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1 동문	1,200,000
이재원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02 동문	480,000
이재춘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79 동문	3,000,000
이정훈	서양어대학 노어과 00 동문	120,000
이주연	서양어대학 노어과 95 동문	120,000
이준희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86 동문	2,400,000
이진희	서양어대학 노어과 76 동문	120,000
이창순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64 동문	100,000
이춘희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8 동문	80,000,000
이태경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94 동문	300,000
이태중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3 동문	480,000
이하나	영어대학 통번역학전공 02 동문	480,000
이학현	인문대학 사학과 85 동문	1,000,000
이학진	법과대학 법학과 92 동문	1,000,000
이혜영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동문	3,000,000
이현자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500,000
이혜영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91 동문	480,000
이호덕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0 동문	10,000,000
이홍재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2 동문	500,000
이희성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89 동문	480,000
이희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8 동문	120,000
임대영	동양어대학 터어키어과 74 동문	1,000,000
임재복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82 동문	480,000
임종부	영어대학 영어과 70 동문	10,334,015
임철우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1 동문	1,000,000
장산이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02 동문	2,400,000
장연수	국제지역대학 국제스포츠레저전공 10 동문	500,000
장영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03 동문	300,000
장유경	석사 한불과 06 동문	100,000
장운호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동문	120,000
장일범	서양어대학 노어과 87 동문	120,000
장형익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120,000
장해일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79 동문	480,000
장화식	박사 무역학과 01 동문	12,000,000
전득주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59 동문	3,000,000
전민근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00 동문	120,000
전성철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76 동문	2,400,000
전철민	서양어대학 노어과 92 동문	120,000
정도삼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동문	2,400,000
정세진	서양어대학 노어과 82 동문	120,000
정연용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1 동문	480,000
정연우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동문	120,000
정원락	서양어대학 노어과 91 동문	120,000
정일수	영어대학 영어과 80 동문	1,000,000
정유미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5 동문	3,000,000
정장철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9 동문	1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정종기	박사 국제경영학과 10 동문	2,000,000
정지훈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98 동문	480,000
조규형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300,000
조규태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2 동문	2,400,000
조종배	영어대학 영어과 85 동문	480,000
조인자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4 동문	480,000
주영림	영어대학 영어과 79 동문	1,500,000
차인혜	동유럽학대학 헝가리어과 95 동문	480,000
차혜선	영어대학 영어과 68 동문	500,000
천부기	동양어대학 터어키어과 91 동문	480,000
최동규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동문	120,000
최동하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9 동문	500,000
최백범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동문	1,200,000
최병천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81 동문	480,000
최영근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4 동문	120,000
최영두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75 동문	2,400,000
최재선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06 동문	120,000
최정화	서양어대학 노어과 84 동문	120,000
최준관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89 동문	500,000
최해숙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69 동문	480,000
최현구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83 동문	1,440,000
최혜정	동양어대학 터어키어과 83 동문	480,000
최희순	석사 환경학과 10 동문	3,000,000
추성태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83 동문	300,000
탁경숙	서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5 동문	2,400,000
하중균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03 동문	120,000
한만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5 동문	120,000
한백건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3 동문	480,000
한상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9 동문	120,000
한중국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1 동문	120,000
한철호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8 동문	40,000,000
함영준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동문	240,000
허철부	영어대학 영어과 57 동문	1,000,000
홍영표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81 동문	2,400,000
홍정숙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81 동문	5,000
홍진표	영어대학 영어과 74 동문	2,400,000
황송이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05 동문	1,200,000
황수진	국제지역대학 인도학과 01 동문	1,200,000
황신애	영어대학 영어과 93 동문	600,000
황인자	영어대학 영어과 74 동문	480,000
김동선	前 총장	100,000
강익수	외대교수	13,758,545
고영훈	외대교수	3,300,000
곽순례	외대교수	480,000
권원순	외대교수	1,050,000
김경희	외대교수	2,400,000
김광섭	외대교수	6,470,000
김민영	외대교수	27,277,090
김민정	외대교수	960,000
김원호	외대교수	1,440,000
김유강	외대교수	6,470,000
김중별	외대교수	13,638,545
김진아	외대교수	1,800,000
김형래	외대교수	480,000
김혜진	외대교수	1,440,000
박노호	외대교수	27,277,090
박정운	외대교수	7,300,000
변해철	외대교수	5,000,000
소병국	외대교수	10,000,000
송승서	외대교수	120,000
신정아	외대교수	2,400,000
신주철	외대교수	20,000,000

Donation List

HUFS 발전기금 전체 약정자 명단

HUFS NEWS

2014. 01. 01~2014. 11. 3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오중진	외대교수	275,000
은대원	외대교수	4,800,000
윤은경	외대교수	480,000
이승용	외대교수	1,440,000
이정희	외대교수	27,277,090
이종욱	외대교수	1,500,000
이지은	외대교수	1,920,000
장태상	외대교수	27,277,090
장태용	외대교수	2,400,000
정경원	외대교수	13,638,545
최영수	외대교수	2,400,000
최완진	외대교수	5,000,000
최요섭	외대교수	1,440,000
최재철	외대교수	1,000,000
최종찬	외대교수	2,400,000
최철	외대교수	2,700,000
최호성	외대교수	6,484,899
홍완석	외대교수	3,120,000
황성우	외대교수	120,000
강성위	명예교수	1,000,000
김희영	명예교수	10,000,000
박정근	명예교수	5,000,000
송경숙	명예교수	3,000,000
이숙자	명예교수	10,000,000
장실	명예교수	120,000
Lyman McLallen	퇴직교원	5,000,000
박경은	퇴직교원	2,400,000
강미리	외대직원	480,000
김법석	외대직원	480,000
김병혁	외대직원	480,000
김석중	외대직원	480,000
김원범	외대직원	480,000
박식원	외대직원	1,440,000
우주혜	외대직원	480,000
정중훈	외대직원	1,000,000
최완식	외대직원	10,000,000
최효영	외대직원	1,000,000
홍순혁	외대직원	1,000,000
(재)외대문장학회	동문단체	24,000,000
네덜란드어과동문회	동문단체	20,000,000
동양어대학 이란어과 동문회	동문단체	6,582,371
미인어과 동문회	동문단체	5,900,000
만월의 행복	동문단체	3,000,0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동문회	동문단체	80,000,000
외교통상부 동문회	동문단체	3,000,000
외대경영대학원동문회	동문단체	2,000,000
외대여성동문회	동문단체	13,000,000
외대학보동문회	동문단체	20,000,000
외학회	동문단체	10,000,000
재홍콩동문회	동문단체	4,000,000
정의과동문회	동문단체	50,000,000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동문회	동문단체	56,00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동문단체	5,000,000
한국외대 ROTC 총동문회	동문단체	100,000,000
한국외대119학군단50기동기회	동문단체	2,100,000
외대비전교회	교내단체	1,000,000
통번역센터	부설기관	50,000,000
한국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기관	49,000,000
사보권	외대시랑후원업소	3,000,000
강영귀	기타(개인)	5,000,000
권희덕	기타(개인)	6,781,500
김정국	기타(개인)	3,0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백철현	기타(개인)	500,000
익명	기타(개인)	221,106,600
차상석	기타(개인)	20,000,000
(주)동림	기타(기업)	3,404,000
(주)동아이지에듀	기타(기업)	9,563,873
(주)디지털존	기타(기업)	10,000,000
(주)메트로코리아	기타(기업)	5,000,000
(주)비지애프리테일(CU)	기타(기업)	82,000,000
(주)아이디씨텍	기타(기업)	22,000,000
(주)우진고분자	기타(기업)	3,363,000
(주)유웨이어플라이	기타(기업)	5,000,000
(주)이콜에스엔엔	기타(기업)	38,000,000
(주)진학사	기타(기업)	17,000,000
(주)코리아엔트카	기타(기업)	3,000,000
(주)포엘전자	기타(기업)	2,636,000
EDS코리아	기타(기업)	6,372,600
KD대우증권	기타(기업)	259,290,000
SK텔레콤(주)	기타(기업)	100,000,000
경문사	기타(기업)	1,700,0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10,000,000
단하유흥(주) 압구정점	기타(기업)	4,995,000
메가스터디(주)	기타(기업)	162,050,000
미스터인	기타(기업)	11,471,000
소프트맥 주식회사	기타(기업)	3,050,000
스탠다드뱅크	기타(기업)	100,000,000
신동와인매(주)	기타(기업)	1,356,000
이디아 외대대학원점	기타(기업)	10,089,000
이마트	기타(기업)	9,890
카페네스카페	기타(기업)	25,000,000
카피나라	기타(기업)	20,000,000
케임브리지(주)	기타(기업)	3,300,000
키다리영어사	기타(기업)	4,000,000
키움증권	기타(기업)	6,726,000
하나대투증권(주)	기타(기업)	6,748,000
한국가스공사	기타(기업)	10,918,000
(재)덕영재단	기타(단체)	248,000
(재)라이언스	기타(단체)	2,000,000
(재)러시안개시배정장학회	기타(단체)	27,204,000
(재)홍한재단	기타(단체)	9,000,000
(주)삼경엔터프라이즈	기타(단체)	10,000,000
(주)세종	기타(단체)	100,000,000
(주)와이엠종합건설	기타(단체)	3,374,000
(주)우리미래클	기타(단체)	9,600,000
(주)젤라블루코리아	기타(단체)	5,000,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48,000,000
KT 문화재단	기타(단체)	8,442,000
KT&G상상랜드 기금운영위원회	기타(단체)	500,000
경보미디어	기타(단체)	1,000,000
고려CCC	기타(단체)	3,000,000
공단소방서	기타(단체)	1,013,040
과천애향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글로벌캠퍼스 세탁실	기타(단체)	1,000,000
글로벌캠퍼스 신우회	기타(단체)	2,000,000
금산소방서	기타(단체)	1,141,920
남정장학재단	기타(단체)	32,500,000
노업문화재단	기타(단체)	1,600,000
당진소방서	기타(단체)	1,141,920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기타(단체)	10,366,000
돈암장학회	기타(단체)	8,000,000
동부문화재단	기타(단체)	10,089,0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121,095,000
미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6,748,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미래에셋자산운용	기타(단체)	97,698,000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17,242,000
백미장학금(마인어과)	기타(단체)	5,000,000
백암복지재단	기타(단체)	11,976,000
백운장학재단	기타(단체)	5,000,000
법무법인참	기타(단체)	1,000,000
보령소방서	기타(단체)	1,141,920
본술김종한장학재단	기타(단체)	6,726,000
삼산배움과나눔재단	기타(단체)	3,60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209,487,500
삼송장학회	기타(단체)	11,200,000
생명보험협회	기타(단체)	11,0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36,000,000
성남시장학회	기타(단체)	7,667,000
성육문화재단	기타(단체)	15,168,000
성음문화재단	기타(단체)	4,000,000
승화장학문화재단	기타(단체)	6,726,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30,600,000
씨네21(주)	기타(단체)	2,000,000
아산재단	기타(단체)	32,247,000
엘트벨민초장학재단	기타(단체)	16,815,000
영도육영회	기타(단체)	1,500,000
영동문화재단	기타(단체)	9,100,000
예산소방서	기타(단체)	1,141,920
외대교회	기타(단체)	11,5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용운장학회	기타(단체)	3,000,000
용인시민장학회	기타(단체)	7,600,000
우덕재단	기타(단체)	23,874,000
원아시아클럽서울	기타(단체)	1,000,000
의송장학회	기타(단체)	4,370,000
일산장학회	기타(단체)	6,25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41,549,000
재단법인 서강장학회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송천재단	기타(단체)	6,000,000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기타(단체)	1,200,000
정산장학재단	기타(단체)	5,000,000
정수장학회	기타(단체)	49,788,000
정원재단	기타(단체)	6,726,000
중국 광저우 홍콩 심천 동문회	기타(단체)	1,084,000
춘천소방서	기타(단체)	1,111,920
포스코창암재단	기타(단체)	65,935,000
하림장학재단	기타(단체)	3,6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15,485,000
한빛문화재단	기타(단체)	2,000,000
한원장학회	기타(단체)	6,000,000
함안소방서	기타(단체)	1,438,560
해오재단	기타(단체)	10,000,000
현마용역재단	기타(단체)	23,541,000
형남진장학재단	기타(단체)	6,000,000
홍산장학재단	기타(단체)	8,000,000



지금, 우리 학과 장학금 나무를 확인하세요!
<http://mscholarship.hufs.ac.kr>

미네르바·명수당 장학금 캠페인

학창시절의 낭만이 가득했던 교정에 우리 학과 장학금 나무가 자라납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 장학금이 늘어갈수록 우리 학과 나무에도 싱그러운 나뭇잎과 꽃이 늘어갑니다.

100년을 향한 외대의 영광을 이어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나뭇잎을 보내주세요.

장학금캠페인의 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학과의 장학금으로 전용됩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 TEL 02-2173-2756 E-mail hufs5@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대학으로서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접는 선

보내는 사람

□□□□-□□□□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9.2~2016.9.1
동대문우체국
제40122호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1 3 0 - 7 9 1



Photo Essay



<눈이 내린 서울캠퍼스의 겨울 풍경>

내일을 마중하는 우리들의 준비 과정

멀리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소복하게 내리는 하얀 눈에
코끝 시린 계절.

지난 한 해의 발걸음이 쌓여
도톰해진 오늘에 선 우리는,
조금은 분주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대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내디딜
단단한 첫걸음을 준비합니다.